

‘1위만 키워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모집 상한액 7억→15억 확대
업계 1위 ‘와디즈’만 거래 집중
때늦은 규제완화로 시장 불균형

당국 규제로 시장 다양성 훼손
상당수 업체 ‘개점휴업 상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연도별 실적
(단위: 만 원)

| 연도 | 펀딩 시도 | | | 펀딩 성공 | |
|-------|-------|----------|----------|-------|----------|
| | 건수 | 모집금액 | 청약금액 | 건수 | 모집금액 |
| 2017년 | 295건 | 430억1368 | 308억4685 | 183건 | 279억6084 |
| 2018년 | 286건 | 417억6670 | 330억2828 | 183건 | 298억5319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형적 구조에 대해 “그러지 않아도 작은 시장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증권형 펀딩에선 와디즈가 독보적이다. 업계에선 작년 상반기 와디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모집금액 기준 68%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로 인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파이도 크지 못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2018년 크라우드펀딩 시도 건수는 286건으로 2017년보다 9건 줄었다. 펀딩 성공 건수는 183건으로 동일했다. 그나마 펀딩 성공 금액은 6.77% 늘어났다.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시장 1위 업체에 몰리는 것은 시장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업체들은 촘촘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로 인지도를 쌓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도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의 기회를 이미 한 차례 실기했다. 특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업계 1위인 와디즈조차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장 다양성을 훼손시켰고, 시장 파이도 쪼그라들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업체가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우람 기자 hura@etoday.co.kr

외환파생상품 거래 외국계은행 ‘짹짹’

공정위, JP모건 등 과징금 7억 철회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담합을 한 JP모건체이스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은행의 사전 가격 합의 등 담합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 제시할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상품으로 통화스와프·선물환·외환스와프 등이 대표적이다.

2010년 5월 4일 원·엔 통화스와프, 2011년 11월 4일 원·달러 선물환 거래에서 고객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다.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의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4개 은행은 또 고객이 여러 거래 후보 은행 중 특정 거래 은행을 선정하면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와프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고객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한파를 즐긴다...빙벽 스티링 만점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강원 원주 판대 아이스파크 인공빙벽을 찾는 동호인들이 거대한 얼음 벽을 타고 있다. 이 빙벽은 폭 200m, 높이 100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밑에서 봐도 아찔한 빙벽 꼭대기의 풍경이 궁금하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올 IPO 공모액 10兆 넘어 역대 최대 기대

현대오일뱅크 등 대어급 줄줄이 대기

올해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공모 금액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연간 IPO 최대 규모는 2010년 10조 907억 원이다.

특히 현대오일뱅크, 호텔롯데 등 조 단위 대어급 상장사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 준비 중인 주요 기업의 예상 공모금액은 현대오일뱅크 2조 원, 교보생명 2조 원, 이랜드리테일 2조 원, 흥플러스트리츠 1조 7000억 원, 현대오토에버 5000억 원, 바디프랜드 4100억 원 등이며 전체 IPO 시장 공모액은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호텔롯데(최대 6조 원), SK루브리컨츠

2019년 상장 예상 주요 기업

| 회사명 | 예상 공모액 | 상장 예정 시기 |
|---------|------------|----------|
| 흥플러스트리츠 | 1조 7000억 원 | 1분기 |
| 이랜드리테일 | 2조 원 | 1분기 |
| 현대오토에버 | 5000억 원 | 1분기 |
| 바디프랜드 | 4100억 원 | 1분기 |
| 현대오일뱅크 | 2조 원 | 상반기 |
| 교보생명 | 2조 원 | 하반기 |
| 호텔롯데 | 6조 원 | 2019년 내 |
| SK루브리컨츠 | 1조 2000억 원 | 2019년 내 |
| 카카오게임즈 | 1조 원 | 2019년 내 |

*중시상황과 회사상황에 따라 예상 공모액 및 상장 시기 변동 가능

(1조 2000억 원) 등 잠재적 IPO 대어도 상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실제 공모금액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대형마트인 흥플러스트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한 흥플러스트리츠(한국리테일흥플러스트리츠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올해 첫 신규 상장 기업으로 꼽힌다. 이르면 3월, 늦으면 4월 초 상장이 계획됐다. 예상 공모 규모는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최대 2조 원 규모의 공모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상장 시점은 올해 상반기다.

이랜드리테일, 현대오토에버, 바디프랜드 등은 1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보생명, 호텔롯데, SK루브리컨츠, 카카오게임즈(1조 원) △HDC아이서비스(600억 원) △CJ CGV 베트남(1000억 원)도 올해 상장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IPO 예정 기업은 웹케시(252억 원), 노랑풍선(200억 원), 셀리드(300억 원), 이노테라피(1000억 원) 등이다.

고종민 기자 jim@

“부동산 조금만 불안해도 추가 대책 마련”

김수현 정책실장 “집값 상승세 꺾였지만 서민에겐 여전히 높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승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서민에게 집값은 소득보다 높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실장은 또 최근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칠 영향과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

지만, 집값이 오르면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조업 혁신 정책에 대해선 “지난해 자동차와 관련 부품, 그리고 조선 산업에 대해 많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제조업 혁신 영역으로 반도체·바이오·섬유 산업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바이오 산업 혁신정책에 대해 “현 정부 들어 바이오 산업에 대해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하거나 지원책을 공유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마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발언도 있고 하니 조만간 바이오 산업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다보스로 가는 경제인... '4차 산업혁명' 상생 길 찾는다

내일부터 '다보스포럼' 개막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는 최태원 SK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제 협력 체계인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에 대한 논의가 예고된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기업인들은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제49회 다보스포럼'은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라는 핵심 주제로 개최된다. 다보스포럼은 1971년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도 재계의 발걸음은



최태원 SK 회장 황창규 KT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최태원, 기업 생존 전략 연설... 김동관·김동원도 2년 연속 참가 황창규, IBC 초청위 자격·감염병 확산 방지 성과 프로젝트 공유 허세홍, 글로벌 동향 파악... 김영훈, 9월 '세계에너지총회' 홍보

이어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별도의 세션에 참석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

업 생존 전략이라는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창규 회장은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황 회장은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국제비즈니스위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역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만나며 새로운 사업 기회도 구상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다보스포럼에 개근 중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세계에너지총회의(WEC) 회장으로서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에너지 및 연관 분야 리더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9월 열리는 세계에너지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참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은 영위 중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등장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 마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이현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결혼한 밀레니얼세대, 소비의 틀을 깨다

'소확행' 즐기지만 아이 위해 아낌 없는 투자... 간편식 선호·경험 중시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의 마케팅 방향을 바꾸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가심비를 중시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과 출산이 본격화되면서 밀레니얼 가족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김난도 교수가 펴낸 '2019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따르면 '밀레니얼 가족'은 기성 세대와 다른 문화적 공통분모를 가진 집단으로, 올해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과 소비 침

신세계백, 아동전문관 개설 GS리테일, 밀키트 육성 등 기업 마케팅도 변화 움직임

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복 시장은 2012년 8771억 원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조8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합리적인 소비를 즐기지만 내 아이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끈 대표적인 변화다.

신세계백화점의 아동 브랜드 매출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월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9월 전년 동기 대비 18.9%나 신장했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2016년 업계 최초로 강남점에 '리틀신세계'라는 아동전문관을 개설하기도 했다.

샘소나이트 레드스는 밀레니얼 세대의 도전을 응원하는 '캐리 온(Carry On)'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컬렉션을 선보였다. 샘소나이트 레드스는 '가방을 메다'와 '진진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캐리온' 캠페인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외식 업계는 물론 유통업계도 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브랜드 '헤라'의 메이크업스튜디오.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레니얼 세대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간편식이 속속 등장하며 HMR 시장은 4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GS리테일은 밀키트 배송서비스 브랜드 '심플리크'를 통해 밀키트 분야 육성성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인 익스프레스를 '신선·간편식 전문매장'으로 본격 재편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헤라는 최근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점 지하 1층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상주하는 '메이크업 스튜디오' 매장을 오픈했다. 헤라 메이크업 스튜디오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상주하는 매장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뷰티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셉트로,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을 겨냥한 것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가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정치적 독립성 보장 안돼... 정권의 '재벌 저격수' 우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국민연금이 상장사 경영권 개입을 공식화했다. 개입 근거는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디스 코드) 가이드라인'이다.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인맥에선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데다 여론 등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스튜어디스 코드 세부 기준 공개 = 국민연금은 18일 투자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디스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분율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중 1% 이상인 기업 중 △잔물 배당 기업 △사연 봉 과대 기업 △5년 내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사익 편취 기업 등이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이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기업 경영진을 1년간 비공개로 만나 개선책을 논의하고, 변화가 없으면 공개서한을 보낸다. 중점 관리기업이 공개서한을 받은 이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는 주주 제안을 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셈이다.

◇대기업 길들이기와 투명·공정한 주주권 행사 사이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오늘 대한

삼성전자·현대차 등 297개사 지분율 5% 이상 기업 경영 개입

여론 등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 '대기업 길들이기' 수단될 수도

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전에 대한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디스 코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국민연금 11.56% 보유)과 한진칼(7.34% 보유)은 총수 일가의 각종 사익 편취, 배임,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박 장관이 직접 스튜어디스 코드 이행에 관한 견해를 밝혔으며, 국민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안전을 논의하기 전에 나온 만큼 성급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발언 직후 진행된 당시 회의에선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는 2월 초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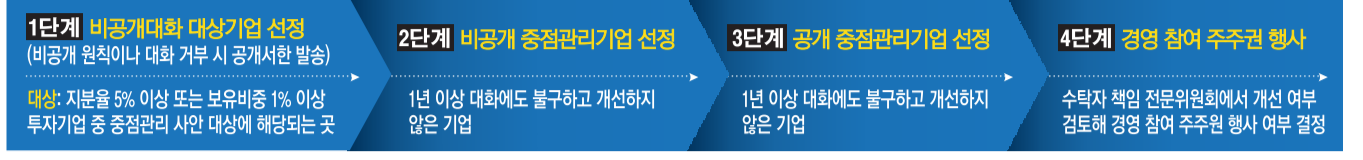
◇국민연금 정치 개입 방해막이 대책 논의해야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운용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부처 차관 4명이 20명의 기금운용위원에 속해 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실행 방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는 주주 제안이나 주주 대표소송 등을 가리킴)

※ 출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 행사(스튜어디스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위 위원 14명도 기금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결국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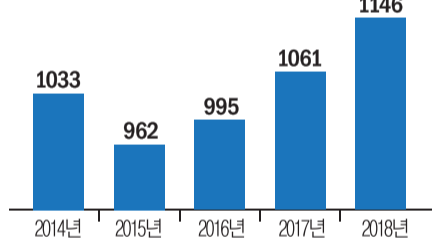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한 이후 만들어졌다. 박상수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주

권 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주주권 행사 분과는 김경울 참여연대 경제금융소장 등 9명, 책임투자 분과는 이재혁 고려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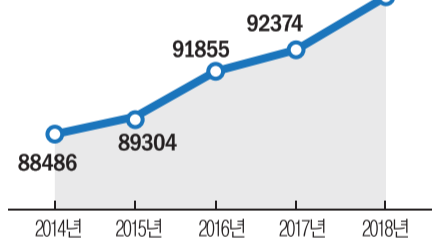
의 위원 중 9명이 친정부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업계 인맥에선 이 같은 정부의 경영 개입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im@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단위: 개)



중소 수출 1146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화장품 호황... 작년 8%↑ 2년 연속 10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보다 8% 늘어난 114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뿐 아니라,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해는 1061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7년과 2014년(1033억 달러), 2012년(1029억 달러) 등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관련 장비와 한류 영향에 따른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출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다. 총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2015년 18.3%, 2016년 20.1%, 2017년 18.5%, 지난해 18.9%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 화장품, 평판디스플레이(DP)제조용 장비, 반도체제조용 장비, 철관, 계측제어분석기 등 6개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32.1%를 차지했다. 수출이 늘어난 9개 품목 중에서 5개는 두 자릿수 증가

를 보였다.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은 6.1% 늘어난 55억 달러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과 주요국 제조업 호황으로 2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했다.

반도체제조용 장비(31억 달러)와 평판 DP제조용 장비(30억 달러) 수출이 각각 34.0%, 68.0% 늘어나 10대 품목에 처음 진입했다. 특히, 평판DP제조용 장비의 수출은 2010년 대비 9.5배, 전년 대비 1.7배 성장했다. 자동차부품은 2.5% 증가한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과 한국 완성차 기업의 해외공장으로서의 부품 수출이 늘었다.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등 유망 소비재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한류 영향 등으로 6.9%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은 48억 달러로 27.7% 늘어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의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 규모는 17% 늘어난 273억 달러, 미국 수출은 12% 증가한 133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홍중화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주요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 하방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롯데칠성음료

우도 블랑로셰 카페 — 이제 지방산에서 만나라

BLANC ROCHER

제주도 우도면 우도해안길 783

우도 블랑로셰 카페는 칸타타의 지역상생 캠페인이 발굴한 첫 번째 카페입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배 올바르게

'세계화 4.0' 新협력 대비 규제완화·산업구조 혁신 필요

현대경제연구, 다보스포럼 제언

4차 산업혁명 '공동 번영' 화두 국제 공조에 적극적 역할 해야 한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조성

세계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비 수출품목·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장기적 체질 개선 노력 지속

2019년 다보스포럼 이슈

| 2019년 세계 주요 이슈 | 2019년 다보스포럼 의제 | 2019년 다보스의 대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갈등 확산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 글로벌 리스크 관리 | <p>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구조 글로벌 협력 관계 구축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 환경 보호와 기후 재난 - 공정경제 -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등 | <p>10대 부문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경제 협력 ②기술 정책 ③사이버 보안 ④금융 및 통화 정책 ⑤경제 정책 결정 ⑥리스크 회복력 ⑦인적 자본 ⑧새로운 사회 ⑨산업 시스템 ⑩제도 개혁 <p>14개 시스템 이니셔티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소비의 미래 ②디지털 경제 및 사회 미래 ③경제 발전의 미래 ④교육, 성 역할, 직장의 미래 ⑤에너지의 미래 ⑥환경 및 천연 자원 안보의 미래 ⑦식량 시스템의 미래 ⑧금융 시스템의 미래 ⑨국제 무역과 투자의 미래 ⑩건강과 의료의 미래 ⑪장기적 투자, 인프라 및 개발의 미래 ⑫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⑬모빌리티의 미래 ⑭제조와 생산의 미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라.”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부터 개최되는 '제49회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는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2019년 다보스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계화 4.0은 지식, 정보,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은 미국발(發) 자국우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선 새로운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방법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역시 국제 공조에 동참해 미래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업그레이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계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규칙 메이커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실리 중심 외교 전개와 전략적 경제 협력, 사회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규제 완화, 민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에 대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과 기술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는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당부했다.

이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세계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 경

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와 외교적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의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국제 갈등 확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 등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트럼프·시진핑·메이·마크롱 일제히 '노쇼'...김빠진 다보스

기후변화·글로벌 경기둔화·브렉시트 등 국제적 현안 산적한데 G7 중 4개국 정상 불참...글로벌 기업 CEO들 '반쪽 행사' 실망감

22~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강대국 정상들이 모두 불참한다. 기후변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국제 정치·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CNN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 정상들이 각국의 내용으로 일제히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찌감치 연방정부의 첫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미국 대표단도 참석을 취소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다보스포럼에 2회 연속 참석하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대규모로 동행할 예정이었다. 므누신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포럼 오프닝 세션에서 공동 연설을 하고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재무장관 만찬도 주최할 예정이었지만 없던 일이 됐다.

미국 외에도 브렉시트로 정국이 혼란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와 '노란조끼' 시위에 대응하고 있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이 행사에 불참한다. 지난해에 참석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작년 기조연설을 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올해는 참석하지 않는다. G7 중에서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정상 정도만 참석한다.

세계 경제 둔화와 기후변화 등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논의들을 주로 담당해야 할 국가들이 모두 뒤로 빠진 상황이다.

특히 7만1000달러(약 1억 원)에 달하는 풋값을 내고 다보스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CNN은 다보스포럼에서 수백 건의 패널 토론과 세션이 열리지만 실제 참가자들의 관심사는 유력한 인사들과의 우연한 만남이나 저녁 식사 등 '네트워킹 쌓기'라고 전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세계화 4.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국제 외교무대 '신인' 들은 돋보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다보스포럼을 통해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념적 구속과 광범위한 부패가 없는, 달라진 브라질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0~2세 어린이집 과잉 이용... 교사 처우 개선 막는 장애물
“차등 지급·학부모 부담 필요하지만 문제 제기 못하는 상황”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 유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간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매년 보육료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기본보육료를 전액 재정으로 부담하는 현 체계로는 보육료 인상 폭에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2세 보육료 예산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3조943억 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39.9%였던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7년 말 52.6%까지 치솟았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육료 단가 인상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무상보육 시스템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누구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개편이란 게 결국은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 누구도 쉽게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장 최저임금 수준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로 편성하는 것을 거부해 정부로서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일각에선 3~5세처럼 0~2세 보육료도 차등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논의 의제로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보육료 인상분에서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면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과 보육료 지출이 줄어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나 전반적인 보육의 질을 높일 여지는 늘어날 것”이라며 “단 어떤 방향이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최소한 내년 총선 전까지 누구도 무상보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못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채권 전문가들 “한은 올 성장률 0.1%p 낮출 것”

“수출·내수 부진... 2.6% 전망”
금리 동결 예상 속 하반기 인상도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지난해 4분기(10~12월) 추락한 국제유가를 반영해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섯다운(연방정부 폐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한은이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긴 어렵다. 미 연준(Fed)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

로가 명확치 않아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1명의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은이 기존 성장률 전망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순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세 부분에서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5명의 전문가들은 당초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 등 상방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미 하락을 예고한 만큼 14명의 전문가들이 하향조정을 예상했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유류세 인하와 높았던 유가 전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 전원은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2명의 전문가들이 연내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4명은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연내 동결 전망 중에서 3명 정도가 인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약탈러로 인해 신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지준율이 아닌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고 연준도 동결을 지속할 경우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극대화될 수 있겠다”고 봤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신천지예수교회 “한기총, 회개하고 신천지에 사과하라”

역사적 과오·범죄행위 조목조목 지적하며 회개 촉구
국민 목숨 앗아간 강제개종 사업 즉각 중단 요구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 대표되는 기성교단이 저지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반사회적·반국가적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1일 성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성교단 소속 목사들의 강제개종 사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의적인 이단 규정과 살인을 부르는 종교적 핍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명서에서 “한기총 등 기성교단은 신천지예수교회 창립 이래 36년 동안 인신공격과 핍박, 인권 유린을 자행하였고, 심지어 개종을 한 다며 지난 2007년과 2018년 신천지예수교회의 두 여성 성도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의 주류 교단인 장로교를 비롯한 주요 교단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했고, ‘조선 장로호’라는 전투기까지 일본에 헌납하며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강제징용에도 앞장섰다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이들 교단이야말로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주의자들인 게 신천지예수교회의 주장이다.

또 장로교단은 독재정권의 3선개헌과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으며, 한기총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를 무수히 자행해온 사실도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종교를 가장한 이러한 위장단체가 지금도 철폐되지 않고 정치세력화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들이 바로 기성교단을 대표



▲ 지난 6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 광주시 금남로에서 강제 개종 피해자 故 구지인씨 1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강제개종을 자행하는 한기총 등 기성교단을 규탄했다.

하는 한기총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한기총 등 기성교단이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과 용서와 진리를 믿지 않고 평화를 선포한 신천지와 전쟁을 선포했고 살인을 조장하는 강제 개종을 자행했다며 이들이 바로 최고 이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기총이 위장 종교단체란 사실은 대표회장 선거에서 돈으로 회장 자리를 사들인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증됐고, 목사안수증까지 매매하는 지경이라며 이들을 과연 종교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단상담사를 자처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은 납치·감금·폭력을 동반한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를 죽게 한 사건이 2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 뒤에 숨어서 가족을 사주하면서도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기총 등 기성교단 목사들은 최근 10

년간 약 1만 2천 명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죄명을 보면 살인·사기·횡령·성폭행 등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죄는 모두 범하고 있어, 사실상 범죄집단이란 비판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 집단은 한기총 등 기성교단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들이 오히려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사이비’라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설명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한기총이 저지른 영·육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회개하고 신천지예수교회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친일 파였던 장로교단 중심의 한기총과 하나 되어 죄 없는 신천지예수교회의 건국, 평화행사, 문화행사를 방해한 관공서 공무원, 정치인, 기독교 언론인도 회개하라”고 강조했다.



휘발유값 34개월 만에 최저 기름값 하락세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서울 은평구 한 셀프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잘나가는 인삼 작년 수출 19% ↑

올해 2억 달러 돌파 기대

지난해 인삼 수출이 크게 늘었다. 아시아권 전통 시장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어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1억8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8%(3000만 달러) 증가했다. 인삼 수출액은 2011년 1억89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재고 누적과 한·중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기간 부진을 털어내고 사상 처음으로 인삼 2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對) 중화권 인삼 수출액은 1억60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29.3% 늘었다. 한한령이 한잠이던 2016년 5120만 달러까지 줄었던 수출액이 한중 관계 회복으로 2년 만에 두 배 늘어난 것이다.

대일, 대미 수출액도 각각 3380만 달러, 237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1%, 17.3% 늘었다. 러시아(13만7000달러), 독일(17만6000달러)에서도 수출액이 1년 새 각각 10배, 2배 늘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한전, 6년 만에 적자 전망... 고유가로 연료비 증가 영향

작년 1~3분기 4318억 순손실

한국전력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전의 최대주주인 정부에 지급되는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한전의 작년 4분기(10~12월) 매출액은 15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줄고, 영업손실

액(영업이익 적자)은 91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실적 부진 전망은 전 분기 대비 원전가동률 하락(-2.5%)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고유가로 인한 발전사 연료비 증가와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작년 1~3분기 431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당분간 혁신성장 방점... 공정경제 챙길 것”

간담회서 기존 정책 고수 밝혀... 조만간 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대통령 달라지지 않아... 소수성 등 머릿속에서 사라진 적 없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못 박았다. 특히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지점은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때로는 ‘혁신적’, ‘다 함께 잘 사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았다”며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분배보다 투자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들이 있다”며 “담론적 논의를 할 마음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들은 대통령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한번도 지워진 적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라 경제 행보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1~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집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자동차·조선 산업에 많은 대책을 내놨고 올해는 반도체·바이오·섬유 산업 혁신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트럼프 “비핵화 많은 진전 있어” 비핵화 시계 다시 ‘짜깁깁’

영변 핵사찰·ICBM 폐기, 종전선언·제재 완화 ‘빅딜’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 내달 개최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동안 멈춰섰던 남북 경제협력 시계도 다시 움직여 올해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제 북한 측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엄청난 만남이었고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었다”며 “매우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마도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한 나라를 선택했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많은 진전’과 ‘다른 많은 것’에 대해 북한 영변 핵사찰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로 종전선언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이 큰 틀에서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북·미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며 하노이와 다낭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어 곧바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북·미 간 큰 틀의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최섉희 외무성 부상(차관)과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핵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등 구체적 내용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실무회담은 남북한과 미 실무협상 대표들이 스톡홀름 외곽의 외판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스톤 콘퍼런스’에서 22일까지 3박 4일간 숙식을 함께 하는 ‘합숙 담판’ 형식으로 이뤄진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회담 장소로 날아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 종전선언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민 기자 lawsdm@

작년 실업급여 6.7조 지급 ‘사상 최대’

고용 악화에 실업자 증가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인 6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459억 원 증가한 6조688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7만2000

명(3.6%) 증가했고,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 하한액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종사자의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그만큼 건설종사자들이 지난해 매세운 고용한파를 겪었다는 의미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8.1%(약 2600억 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50대는 전년 대비 12.2%(3만 7068명) 증가한 33만 9701명, 60대는 20.2%(4만 1579명) 증가한 24만 7404명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뉴스스

‘투기 의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 野 “의원직 내려나라”

손 “문제 해결하고 돌아올 것” 여야, 상임위 소집 놓고 대립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 제가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당 지도부에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

며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증거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맹탕 기자회견’, ‘변명과 선동’ 등의 표현을 동원해 손 의원 회견을 혹평했다.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고작 ‘탈당’을 한다고 했다”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며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공격했다.

손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방의 불씨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여부로 옮겨붙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전남 목포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바른미래당도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손 의원이 당적까지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노사 충돌에 전문가는 문제 제기... 같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이달 합의안 마련 차질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 했던 고용노동부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놓고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고, 두 번 열린 최저임금 개편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20년부터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겠

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지만, 이달 안에 노사 합의안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노동계는 개편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과 16일에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는 최저임

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것은 옥상옥으로 자칫 같듯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력은 일본과 인도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고용부는 예정대로 24일에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AI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기에
준비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마침내 완성된 SK텔레콤의 5GX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日 도요타-파나소닉 '전기차 배터리 동맹'

양사 2020년 공동법인 설립
韓·中 기업 아성에 도전장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전기업체 파나소닉이 새 회사를 설립해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지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종 간 합종연횡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새 회사의 출자 비율은 도요타가 51%, 파나소닉이 49%다.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은 현재 일본, 미국, 중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다. 도요타와 손을 잡게 됨에 따라 일본 효고현과 중국 다롄에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5곳을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현재 이 시장은 비용과 규모 면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와 전기 업체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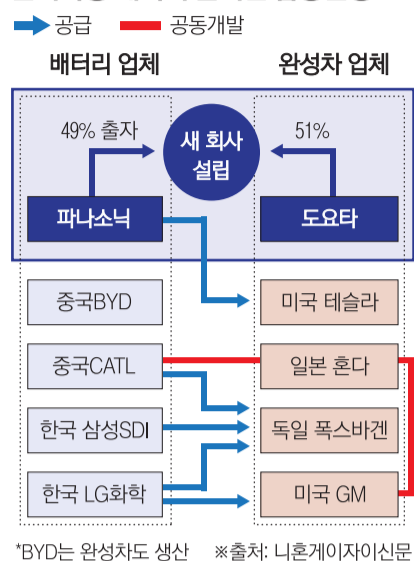
세계적인 혁신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사는 2020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HV)의 약 50배 용량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배터리는 도요타의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 외에 전기차 부문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마쓰다와 스바루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생산 규모를 확대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거액의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차세대 배터리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대용량에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전지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비용과 기술 면에서 세계적 경쟁 체제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HV를 중심으로 연비 경쟁에서 우위를 달렸지만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기업에 비해 전기차 상품화는 더딘 편이다. 2030년께는 HV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를 현재의 3배 이상인 55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대용량 배터리의 비용 절감과 안전성이 최대 과제인 만큼 파나소닉

전기차용 배터리 둘러싼 합종연횡



과의 제휴로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 900만 대로 현재보다 8배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휘발유 차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전기차로의 이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이 2017년 파나소

닉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CATL은 2020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2017년 대비 약 2배인 5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20년까지 중국 난징에 신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삼성 SDI는 중국 장쑤성에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2위인 파나소닉은 도요타와의 제휴로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공급처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터리 재사용 및 회귀금속 등 자원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파나소닉은 1조 엔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만큼 거액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 대규모 투자 실패로 경영 위기에 빠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신문은 "자동차 기술 경쟁은 자율주행차의 실용화 등 큰 변혁기에 있다"며 "이로 인해 업종이나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경쟁의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자동차의 최대 과제는 차값의 4~5%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려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수로 꼽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중국 재벌 해외 자산 이전 현황

| 이름(기업명) | 날짜 | 금액 |
|---------------|---------------|--------|
| 우야전 (룽포그룹) | 2018년 11월 21일 | 79억 달러 |
| 쉬스후이 (다리식품그룹) | 2018년 12월 7일 | 42억 달러 |
| 탕젠팡 (저우헤이아) | 2018년 12월 18일 | 6억 달러 |
| 쑤홍빈 (수낙차이나) | 2018년 12월 31일 | 45억 달러 |

"세금 폭탄 맞을라" 재산 빼돌린 中재벌

증세 앞두고 19兆 해외 은닉

중국 재벌들이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말 중국 재벌 4명이 170억 달러(약 19조 원) 이상의 재산을 해외에 있는 가족신탁업체로 이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수낙차이나홀딩스의 쑤홍빈 회장과 중국 최대 여성 부호 중 한 명인 우야전 룽포그룹 회장, 다리식품그룹의 쉬스후이 회장, 레스토랑 체인 저우헤이아 인터내셔널홀딩스의 탕젠팡 회장 등이 문제의 재벌 4명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2개월간 이들 4명이 총 172억 달러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쑤홍빈 회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대부분을 지난달 31일 사우스다코타 트러스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45억 달러에 달한다.

우야전은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세운 신탁회사에 79억 달러의 재산을 양도했다. 이 자산의 신탁 설정자는 우야전의 딸로 돼 있다. 쉬스후이는 지난달 초 자신과 아내, 딸이 가진 재산을 바탕으로 새 신탁회사를 세워 42억 달러를 이전했다. 탕젠팡 회장은 지난달 6억 달러를 가족신탁 회사에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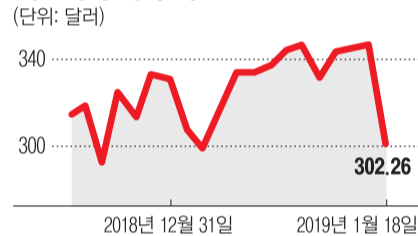
이들 재벌 4명이 운영하는 회사 모두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 중 3명은 자산 해외 이전이 후계자로서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개사의 지배구조에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기업이 관여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블룸버그는 재벌 4명이 지난해 말 갑자기 막대한 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이유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정부가 올해 일반 대중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조사를 강화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중국 개인 자산은 지난해 24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스카 류노아 인터내셔널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신탁업체들이 완전한 조세회피를 가능케 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억만장자들을 위한 세금이연(Tax Deferral) 혜택을 상당 부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테슬라 주가 추이



테슬라, 3000명 감원 주가는 13% 곤두박질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18일(현지시간)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7개월 새 두 번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불행하게도 정규직 직원을 약 7%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수개월 안에 '모델3' 생산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제조기술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며 "휘발유 차와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와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보급형 모델인 '모델3' 생산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한 흑자 유지를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현재 4만5000명인데 7%를 줄이겠다는 건 3150명이 해고된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직원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

머스크 CEO는 4분기에는 흑자를 달성하겠지만 3분기 실적에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테슬라는 2018 회계 3분기(7~9월)에 3억1151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머스크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선 "작은 이익을 낸 정도"라고 밝히며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는 "감원은 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배터리로 모델3 가격을 억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간판 모델인 '모델3'는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뛰어나 2018년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생산 효율이 떨어져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감원 소식에 이날 테슬라 주가는 약 13% 폭락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소를 위한 장벽 예산과 이민자 관련 정책을 맞바꾸는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DACA) 이민정책 3년 연장해줄테니, 멕시코 장벽 예산 달라” 트럼프 ‘셋다운 빅딜’... 민주당 “즉각 거부”

野 “작년에 이미 거부...가능성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에 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민자 관련 정책에서 양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 단번에 거절당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29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셧다운 29일 만에 처음이다.

다카 연장 외에도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남미·아프리카 국가 출신자

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지위(TPS)' 갱신 중단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최대 80만 명이 혜택을 받은 정책으로,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면서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며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회 권한 침해이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타협안에 대해 "이것은 양측이 받아들여야 할 상식적인 타협"이라며 민주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애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non-starter)"이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제안은 이미 예전에 거부됐던 것"이라며 "드러머(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 청년들)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은행-보험 경계 파괴... '종합검사 베테랑' 전진 배치

금감원, 파격 임원 인사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과 보험, 두 권역 간의 벽을 허물고 해당 전문가를 교차 발령하는 등의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 권역'의 반발을 사는 내용은 겪었지만 대체로 소신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장은 임원인사에 앞서 실·국장 80%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하며 파격 인사를 예고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 김동성 전 기획조정국장, 공시 조사 담당 부원장보에 장준경 전 인적자원개발실장을 임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감독원, 김 부원장보는 보험감독원 출신이다.

우선 인사 자체는 이례적이다. 은감원

윤석현 원장, 혁신론 밀바탕

다른 권역간 전문가 교차 발령

'자살보험금 주도' 이성재 임명 즉시 연금 등 보험권 압박 예고

출신이 보험 임원으로, 보감원 출신이 은행 임원으로 가는 '교체' 인사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 임원에 비(非) 은감원 출신이 선임된 것은 금감원 출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권역 간 칸막이가 높은 금감원의 폐쇄적인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이라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 전 국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험 라인을 몰갈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권역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보험 담당' 설인배 부원장보는 원장의



이성재 부원장보(보험)



김동성 부원장보(은행)



정준경 부원장보(공시·조사)

사표 제출도 거부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말 9명의 부원장보에게 인사 적체 해소와 후배 직원들을 위한 용퇴를 내세우며 전원 사표를 요구한 바 있다.

보험담당 임원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보험 권역 임원들이 보험회사와 유착한다는 윤 원장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해석한다. 보험권 직원의 반발과 담당 임원의 사퇴 거부도 윤 원장의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

다. 설 부원장보는 임원직은 유지하되 직위가 배제된 상황이다.

조직 내부의 잡음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인사로 시선이 가는 곳도 역시 '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 원장은 최근 감독당국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칼끝을 겨누고 있

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검사를 중단했다가 윤 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이성재 부원장보 임명으로 더 강한 '압박'을 예고한 셈이다. 이 부원장보는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준법검사국장을 맡아 보험사 제재를 이끈 바 있다. 이 분야에선 사실상 '저격수'로 통한다.

이번 인사로 윤 원장은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인사 내정자들이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간 혁신을 강조했던 윤 원장은 교체 인사와 더불어 '소신'과 '명분'은 챙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제는 성공 여부다. 금감원 내부의 폐쇄성이라 '보수성'을 이겨내고 조직 안정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곽진산 기자 jinsan@



위성호(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신한은행장이 1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신한은행 '2018년 종합업적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탄 커뮤니티 영업점장들과 대상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 "관점 대전환 통한 꿈 실현"

신한銀 종합업적 평가대회

"은행의 모든 부문에서 관점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1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만여 명의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2018년 종합업적 평가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업적 평가대회는 1년간의 영업 성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신한은행의 축제로 198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신한은행은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커뮤니티와 영업점, 직원에게 시상했다.

위 행장은 대회사에서 "국내와 글로벌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손익, 고객만족도 최우수 은행 석권, 서민금융·중소기업 부문 수상, 천만 활동성 고객 달성 등의 성과는 '항상 도전하는 정신'으로 전직원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들과 다르게 접근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금융의 미래에 도달

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은행의 모든 부문에서 관점의 대전환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4명의 직원을 선발해 특별 시상도 실시했다. 특별시상 대상 4명 가운데 3명은 종합업적 평가대회 현장에서 지점장, 부지점장, 과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본인의 경력 목표를 반영해 해외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과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인사를 전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내부 반감·노조 반발 속제로

임추위 결의안, 이사회 통과 2020년까지 대구銀 지휘봉 10개월 경영 공백사태 일단락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2020년까지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한다. 김 회장에게 파열음이 일었던 조직을 추스르고 진정한 DGB 금융의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18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가 올린 김 회장의 행장 겸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0개월째 비어있던 은행장의 경영 공백이 메워졌다. 이사회는 지난해 4월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불명에 퇴진 이후 이뤄진 '회장·행장 분리' 결의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상황의 종결을 통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만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공감한다"며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응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GB금융은 대구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어왔다. 당초 대구은행 이사회는 내부 출신을 은행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김 회장의 겸직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지주사회가 지난해 10월 은행 이사회에만 있던 행장

추천권을 지주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지주 추천위는 은행 이사회가 후보로 추천한 전직 대구은행 임원들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수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사회와 일부 은행 임원들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행장 공백 사태 수습이 급선무라며 '겸직 지지' 성명이 연이어 나오면서 김 회장의 겸직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이날 "권력집중 견제 방안으로 지주회사에서 밝힌 경영 감시시스템 대폭 강화,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기업문화 개선, 권력위임을 통한 자율경영 체제 구축과 차기 은행장 육성 및 선임 계획에 대한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겸직 강행에 대한 대구은행 내부의 반감과 노동조합의 반발은 앞으로 김 신임 행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대구은행 노조는 15일 성명에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은 과거로의 회귀, 지배구조의 후진화를 완성하려는 저의"라며 겸직 추진 포기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한시적 은행장 겸직 기간 동안 최고의 은행장을 육성한 후 미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9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구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불황에... 연금저축보험 해지 늘었다

가입 1년 유지율 84% '6%p↓' '장기간 보유해야 세테크 등 혜택'

연금저축보험 유지율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稅)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등의 장점으로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장기보험의 특성상 단기간 내 해지할 경우 원금 보장이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연금저축보험 유지율이 직전 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업계 대형 3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보험 상품(유

지 건수 최다) 3개를 분석해보니 가입 1년 유지율이 84.3%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분기 유지율 90.1%보다 5.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5년 유지율과 10년 유지율은 각각 72.3%와 70.7%로 지난해 2분기 73.2%와 71.5%보다 소폭 하락했다.

납부 기간이 짧은 연금저축보험의 유지율만 급격히 감소한 것은 최근 저축성보험 해지율 상승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금보험은 15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저축성보험보다 해지율이 낮고, 작년 2분기까지는 오히려 유지율이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락 국면의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저축보험의 특성상 단기 납부 후 해지 시 손실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16.5%

연금저축보험 유지율 추이 (단위 : %)

|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 2017년 말 | 88.1 | 78.3 | 73.3 | 67.5 | 66.5 |
| 2018년 2분기 | 90.1 | 78.5 | 73.2 | 77.2 | 71.5 |
| 2018년 3분기 | 84.3 | 76.5 | 72.3 | 77 | 70.7 |

*삼성, 한화, 교보생명 상품 중 유지건수 상위 기준
*출처: 생명보험협회 공시

(총급여 5500만 원 이상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돌려받으므로 가능하면 만기까지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연금저축보험의 과거 적립률(조회 시점의 총 납부원금 대비 적립비 비율)은 대부분 납부 5년 이후부터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 기타소득세를 감안하면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리금융, 지주 출범 기념 국내외 맞춤형 사회공헌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 계열사에서 대대적인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 계열사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총 26개국 441개 네트워크에서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내외 영업점은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현지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로 우리은행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우리희망상자' 2300개를 직접 제작해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손태승 회장은 200여 명의 신입행원들과 함께 제철과일, 간편식 등 기초먹거리로 구성된 우리희망상자를 만들어 성미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또 우리은행 글로벌자원봉사단은 2월 중순에 4박 5일간 미얀마 양곤 인근 아동병원에서 환경개선 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스마트폰의 획기적 진화 '폼팩터' 전쟁

(형태)



삼성전자가 다음 달 20일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LG전자·화웨이도 'MWC2019'에서 기존 형태와 다른 스마트폰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개발자회의에서 공개된 폴더블폰 시제품.

'형태 혁신'...새 시대 열린다 삼성 선두로 폴더블 신상 예고 LG vs 화웨이 2월 MWC 격돌 모토로라 '레이저' 브랜드 부활

연초부터 '스마트폰 폼팩터(form factor·제품 구조 형태)' 경쟁이 뜨겁다. 삼성 전자를 비롯해 LG전자, 화웨이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조만간 폴더블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경쟁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관건은 이들 신제품이 기존 휴대폰에서 차별점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유포리아(Euphoria·도취감)'를 불러올 수 있느냐. 유포리아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유쾌하거나 의기양양한 기분을 수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혁신전문가들은 신기술에 유포리아가 수반돼야 의미 있는 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태동한 지 10년이 넘는 스마트폰이 전면일률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첫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변화의 시기에 뒤처지면 끝이라는 각오로 업체들은 앞다퉀 신제품 공개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다음 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듀얼 디스플레이가 달린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측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선 LG전자가 시제품이라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전 스마트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에 있는 LG전자로서 이번 폼팩터 경쟁에서 결코 뒤쳐져선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

이 제품은 접으면 3인치대, 펼치면 7인치가 넘는 대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폰과 비슷하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접는 구조가 아니라 두 장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사용한다는 게 다르다.

뒷면에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끼워 넣어서 스마트폰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쓸 수 있는 형태다. LG전자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경쟁력이다.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폴더블폰과 달리 LG전자 듀얼 디스플레이폰은 100만 원대인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최초 폴더블폰 경쟁을 펼쳤던 화웨이는 MWC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P30' 시리즈와 함께 폴더블폰을 깜짝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샤오미 역시 폴더블폰 시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샤오미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폴더블폰 동영상 시연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2000년대 중반 '베컴 폰'으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모토로라 레이저폰도 폴더블폰으로 변신해 돌아온다.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 핸드셋 부문을 인수한 중국 컴퓨터업체 레노보는 다음 달 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과 손잡고 1500달러(약 168만 원)가 넘는 초고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레이저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물론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폴더블폰은 삼성전자가 다음 달 내놓을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을 공개하겠다고 세계 언론에 초대장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갤럭시S10과 첫 폴더블폰을 내놓을 전망이다. MWC에 앞서 전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MWC에 앞서 단독 행사를 여는 것은 화웨이 등 경쟁사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스만 씌우면 스마트폰은 다 똑같아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번에 나올 신제품들에 얼마나 큰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흥행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인도 전기차 1.1조 투자

현대자동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1조1000억 원(약 700억 루피)을 투자한다. 이로써 현대차는 인도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첫 완성차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도 현지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는 18일 현대차가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모델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첸나이 공장 확장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장이 확장되면 첸나이 공장의 연 생산 규모는 70만 대에서 80만 대로 늘어난다. 1500명가량의 노동자 추가 고용도 예상된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일 전기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코나 일렉트릭(EV)'이다. 현지 소비자들의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부터 코나 일렉트릭 1000대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화토탈 해외사채 4500억 발행

한화토탈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억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의 해외 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토탈의 해외 사채는 아시아·유럽 투자자 대상이며 발행 금리는 3.914%다. 해외 사채 발행일은 23일이다.

한화토탈은 채권 발행에 앞서 지난 2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푸어스(S&P)로부터 각각 Baa1와 BBB의 신용등급을 받았고 전망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토탈은 수요예측에 92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주문액이 15억 달러였다고 공개했다. 이 회사는 해외 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설비 투자 재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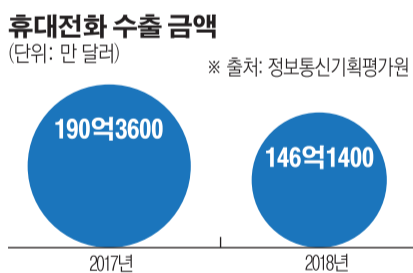
한화토탈은 2020년까지 총 2조43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지난해 휴대폰 수출 23% 줄어...16년 만에 최저

중 공세...점유율 계속 하락 해외 생산 늘고 美 판매 둔화

우리나라의 지난해 휴대폰 수출이 23%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중국 업체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ИIT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액(부품포함)은 146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4억2000만 달러(23.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113억6000만 달러)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16년(300억3000만 달러) 이후로는 3년 연속 감소하며 반동막 났다.

휴대전화 수출은 1996년 4억7000만 달러에서 2002년 100억 달러로 급증하며 수출 효자로 부상했다. 2008년에는 수출액 33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도체

(327억9000만 달러)를 추월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286억7000만 달러로 감소한 후 2017년 200억 달러를 밑돌았고, 작년에는 1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휴대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현지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37% 감소한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프리미엄폰 시장인 미국은 50억 5000만 달러로 10% 줄었다.

휴대전화 수출 감소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작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4000만 대로 전년보다 5%가량 줄며 사상 처음으로 감

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해외 생산 증대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해외 생산 비중은 2010년 15.9%에서 2011년 56.5%로 급증한 뒤 2017년 이후로는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1분기 기준 스마트폰 국내 생산 비중은 9%다.

화웨이·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업체들의 거친 공세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다. 출하량 기준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7년 23.3%에서 작년 1분기 25.6%로 개선됐다가 2분기 22.4%, 3분기 20.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5G폰 배터리 용량 가장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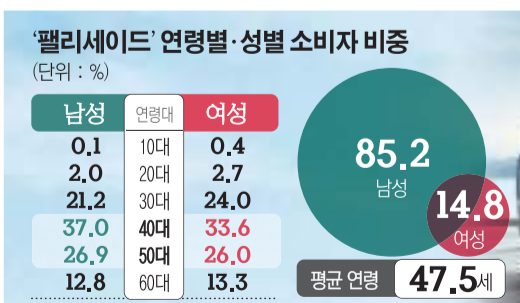
5G 스마트폰 상용화에 앞서 사용자들은 멀티미디어 활용성을 기대하는 반면 배터리와 발열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5G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고객들이 원하는 5G 전용 스마트폰'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74%가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응답자의 70%는 △고화질 영상·라이브 방송 등을 끊김 없이 시청하는 '멀티미디어 활용성' △우수한 화질과 사운드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콘퍼런스·원격진료·원격운전 등이 가능한 5G 전용 스마트폰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65%는 5G 서비스 이용 시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는 것을, 45%는 발열을 우려했다. 내구성(30%)과 디자인(19%)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팰리세이드 인기 비결 #40대 #아빠의 사랑 주 고객 살펴보니... '대형SUV, 50대 남성 전유물' 통념 깨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26.0%), 30대(24.0%), 60대(13.3%) 등의 순이었다.

다른 국산 대형 SUV 경쟁차종과 비교해 서도, 팰리세이드 주 구매층은 40대

(36.5%)가 중심을 이뤘다. 반면 모하비(33.7%), 렉스턴(39.1%)의 경우 50대의 지지율이 높았다. 통상 대형 SUV는 젊은 층이, 대형 SUV는 장년층이 탄다는 통념이 팰리세이드를 통해 깨지고 있는 것이다.

트림별로는 7인승(76.45%)의 경우 8인승(23.6%)보다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선호도가 높았다. 2열이 좀 더 넓고 안락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의 비율이 각각 55.6%와 44.4%로 나타났다. 5가지 외장 색상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은 화이트 크림(45.4% 선택)이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인기 요인으로 △합리적 가격(3000만~4000만 원대) △다양한 첨단 편의 안전장비 △유지보수 등을 꼽았다.

한편 수입 대형 SUV 경쟁자인 포드 익스플로러와 비교했을 때에는 연령대별로 50~60대가 팰리세이드를 보다 선호했으며, 30~40대에서는 익스플로러가 앞섰다. 50대의 경우 26.8%가 팰리세이드를, 19.7%가 익스플로러를 선택했으며, 30대에서는 32.8%가 익스플로러를, 21.6%가 팰리세이드를 구매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주된 배경은 '아빠들의 가족사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분석 결과 40대 아빠의 팰리세이드 구매비중이 가장 높았고 검색 주요 키워드는 가족, 여행, 아빠 등이었다.

20일 현대자동차가 사전계약 첫날부터 8일간 계약된 2만506대의 팰리세이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85.2%로 여성(14.8%)보다 6배가량 많았다.

남성 계약 고객 중 40대의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50대(26.9%), 30대(21.2%), 20대(2.0%)가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고객들이 남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패밀리(가족), 여행, 아빠 등이었다"며 "이를 통해 이들 고객 상당수가 한 가정의 가장이란 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객 역시 40대(33.6%)가 가장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페이
신한페이 FAN
신한, 페이의 편을 다시 짜다
결제 하는 PAY에서 혜택 받는 PAY로



신한Pay FAN

천만 고객이 선택한 신한 FAN의 새 이름, 간편결제 서비스를 넘어, 매 순간 변화하는 고객의 생활에 따라 맞춤 혜택을 드리는 진화된 생활플랫폼입니다. 편리한 금융조회와 상담서비스, 끊임 없는 다양한 플랫폼의 연결로 Pay의 새로운 FAN을 만들어갑니다.

새로워진 신한Pay FAN을 경험해보세요

- 승인알림은 기본, 혜택까지 실시간으로 - Timeline 카드사용 혜택알림 서비스
-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대로 셀프메뉴 구성 - DIY 메뉴 구성
- 금융, 상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 초기화면에서 결제, 금융, 상담까지
-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 없이 연결 - 로그인이 필요 없는 원웹서비스

신한Pay FAN 고객을 위한 특별한 행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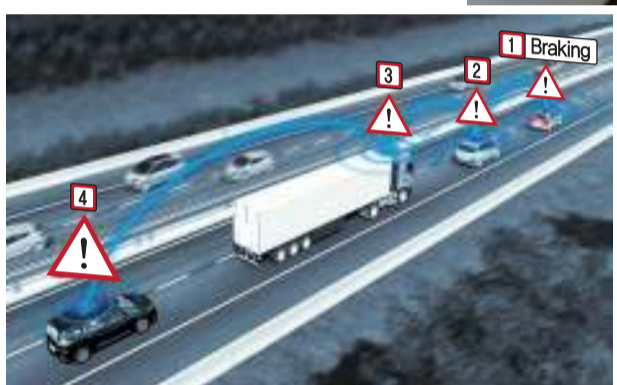
신한Pay FAN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경품과 포인트 적립, 상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행사기간/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Pay FAN 앱의 행사페이지 참조

자율주행차 아직 갈 길 먼데... "저 고라니 안 뛰어 들겠지"

글 쓰는 순서

- ① 막 오른 폴더블폰 레이스
- ② AI 플랫폼 동맹
- ③ 美·中 사이에 낀 韓 로봇
- ④ 갈 길 먼 자율주행 상용화



자율주행시스템은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에 나서는 대형 상용차, 또는 정해진 경로를 달리는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카메라 인식 방법을 넘어 주변 차와 실시간으로 통신한다. 왼쪽 작은 사진의 4번 자율주행차는 3번 대형트럭 탓에 1~2번 차의 상황을 시야(카메라)로 파악할 수 없지만 '통신' 기술을 도입하면 1~2번의 움직임과 주행 상태를 미리 파악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큰 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상용 트럭과 고라니를 합성한 모습. 사진제공 메르세데스-벤츠 미디어

사고예측 시스템, 초보적 단계 작은 오류도 치명적 결과 초래

동물·사람 행동 데이터 모으고 주변 차량 5G 연결해 대비해야

'오토 파일럿' 여객기 기장처럼 "운전자 계속 필요하다" 주장도

커넥티드(Connected)카와 자율주행(Autonomous), 차량공유(Sharing), 전기차(Electric) 등 이른바 C.A.S.E로 불리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비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가운데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늘고 있다. 심지어 "21세기 내에 궁극적인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차량공유와 전기차 등은 이미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자율주행만큼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안전에 직결된 만큼 다양한 보완 신기술 이어져 = 예컨대 주요 산업별 신기술과 자율주행차 신기술은 기본적으로 궤가 다르다.

폴더블 폰이 등장하고 인공지능 가전제품이 활성화되면 삶이 편하고 윤택해진

다. 그러나 이들 신기술은 오류를 일으켜 도 짜증 정도의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친다. 정도가 심해 봐야 경제적 손실 정도다. 반면 자율주행차의 오류는 생명과 직결된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정보통신(IT)기술과 빅데이터가 자율주행차의 완성을 단계적으로 앞당기고 있다. 자동차 기술과 통신 기술은 이미 자율주행차에 접목됐다. 그러나 여전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고 예측 시스템은 초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일의 사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날씨 정보를 바탕으로 차의 주행 상태를 변경하거나, 전방 장애물의 갑작스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들이 자율주행차에 포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자율주행차 기술은 진행 방향 전방에 폭우나 눈길, 강풍이 예보되면 자동차 스스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원활한 접지력을 살릴 수 있도록 주행 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던 도중 타이어를 교체할 수 없으니 엔진과 변속기, 또는 전기모터와 감속기 방식을 변환해 미끄러운 노면에서 접지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전방 장애물의 행동 예측하는 빅데이터 등장 =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엘크 데이터'도 등장했다. 엘크(Elk)란 북유럽에 서식하는 사슴과에 속한 동물이다. 북미에서는 무스(moose)로 불리기도 한다.

북유럽 또는 캐나다의 경우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갑작스레 도로 위로 뛰어든 엘크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이를 위해 저 멀리서 가만히 서 있는 엘크가 도로 위로 뛰어 들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예측 데이터다.

방대한 분량의 동물 행동 데이터가 자율주행차에 접목되면 전방 장애물의 갑작스런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한 속도로 감속할 수 있다. 동물 데이터가 완성되면 보행자 데이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신기술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 견해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해도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객기가 10시간 비행한다면 실제로 파일럿이 조종간을 붙잡는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다. 기상 상황에 따라 항로와 고도를 자율 비행하는 오토 파일럿 기능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신기술이 등장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조종사가 필요하다. 갖가지 상황에 따라 이륙과 착륙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 혼자 스스로 달릴 수 있으나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삼성전자·KT, 자율주행 삼각 동맹... '레벨 4' 기술 눈앞

자동차·전장·5G 기술 협업 지난해 'K시티'서 시험 운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박차

완성차 메이커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단계다. 레벨4는 자동차의 시스템이 이동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수행한다. 운전자의 역할은 출발 전,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입력하는 정도다. 레벨4에 먼저 진입한 기업 역시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기업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다. 결국 전자회사와 통신사까지 뛰어들어야 레벨4는 물론 레벨5 수준의 궁극적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됐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

| | 레벨 2 부분자율 | 레벨 3 조건부 자율 | 레벨 4 고도 자율 | 레벨 5 완전자율 |
|-----------------|----------------------------------|--|--|--|
| | 2019년 | 2020년 | 2025년 | 2035년 + |
| 운전 주체 (주행가능 도로) | 주 : 사람 보조 : 시스템 (시범도로 및 고속도로) | 주 : 시스템 요청시 : 사람 (고속·주요·일반도로) | 주 : 시스템 요청시 : 사람 or 시스템 (고속·주요·일반도로) | 시스템 (모든 도로) |
| 운전자 | 시스템 관리 의무화 | ·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 신설 ·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 사전교육 의무화 | ·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 과로, 질병 등 운전금지 특례 신설 | |
| 차량 장치 | 정비제도 개선 | · 검사제도 개선 · 자율주행차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 | · 구조/기능/장치변경 (특정) 인증체계 마련 ·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  ※출처 : 국무조정실 |

다.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와 전기·전자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 기술이 경지에 다다른 삼성전자, 그리고 5G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을 지닌 KT가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섰다. 이제껏 자율주행차

기술의 근본이 서로 "우리에게 있다"며 강조했던 이들이 결국 글로벌 경쟁사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셈이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KT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

차안전연구원 K시티에서 5G 자율주행 기술 시연에 나섰다.

K시티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 설계를 시작해 2년 반 동안 약 1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시험장이다.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주행시험장 안에 32만㎡(약 10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자동차와 전자, 통신사 등 국내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레벨4에 근접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기술영역 구분도 뚜렷하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의 밑그림이 되는 자동차와 주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을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3.5GHz 대역 5G 네트워크 장비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했다. KT는 5G 이동 통신

망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통신을 담당했다. 5G 기반 차량·사물간 통신(V2X)은 웨이브(WAVE) 방식보다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들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K시티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연결돼 레벨4에 근접한 기술을 선보였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현대차와 KT가 각각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했으나 양사가 협업하지는 않았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와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는 물론 전자회사와 통신사가 협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공유경제 시대로의 변화...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⑨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

‘56분’, 최근 잡코리아가 조사한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다. 경기·인천에 사는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1시간을 훌쩍 넘어 1시간 18분으로 집계됐다. 이 시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하루 컨디션을 좌우한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83%가 ‘출근길 스트레스로 온종일 불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지환(33) 모두의셔틀 대표도 83%의 직장인 중 한 명이었다. 모두의셔틀은 장 대표의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이다. 그는 2012년 동영상 큐레이션 앱 ‘무드클럽’을 창업했으나 2015년 접었다. 무드클럽과 관련해 운영한 페이스북 팔로어 수는 당시 40만 명이 넘었지만, 장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람을 느끼기 힘들었다.

2015년 일반 기업에 취직한 그는 여느 직장인들처럼 ‘지옥철’로 하루를 시작했다. 송파구에서 회사에 있는 압구정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환승을 두 번이나 해야 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쾌적하게 출근할 수는 없을까?’, 모두의셔틀은 이러한 고민에서 2017년 1월 탄생했다.

20일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센터인 ‘마루180’에서 장 대표를 만났다.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는 밝은 표정으로 모두의셔틀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작년 투자 유치에 성공한 모두의셔틀은 현재 110대의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모두의셔틀’ 홈페이지 캡처.

110대의 버스가 수도권을 누비며 직장인들을 사무실까지 데려다주는 셈이다. 지역별로 출근길 경로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일정 수요 이상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멤버십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30km 기준 7만~10만 원이다. 현재 최장 노선은 65km다.

장 대표는 이용자 90%의 이상이 장기 고객인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플랫폼이지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CS 팀으로 케이크 선물을 한 이용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고객을 만날 때 장 대표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월 매출은 10배 이상 늘어났고, 이용객은 20배 증가했다”며 “작년 한 해 누적 이용자는 1만2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모두의셔틀이 창업 이후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고 승승장구만 한 것은 아니다. 작년 4~8월까지 모두의셔틀은 서울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급작스러운 조사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가 서울 강남구 소재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매일 110대 수도권 출근버스 운행... 누적 이용자 1만2000명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4차례 조사...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 겪어 “정부, 택시업계 대화 참여 유도 등 공유경제 위한 ‘심판’돼야”

를 받았다.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운행 중인 모두의셔틀 버스에 뺐다. 당시 이용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탑승에 의문을 표하고 불편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사무실로 불시에 방문해 이용료나 경로 등을 조사해 갔다.

그 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산업진흥원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연된 투자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장 대표는 “모두의셔틀은 전세버스 업체를 단순 연결해주기 때문에 직접 영업하는 운송사업자는 아니며, 플랫폼 업체”라고 부연했다.

규제 문제가 말끔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장 대표는 희망을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때문이다. 이달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제2차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모집을 허용했다. 다만 노선화하지 않은 비정기, 일시적 운행에 한

정된다. 장 대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간 부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러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은 없다”며 “분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와 규칙을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장 대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심판”이라며 “택시업계가 대화에 거부하면 어떻게든 대화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계속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작년 부터 거부해 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편하게”, “이동한다”, 장 대표는 이 두 단어가 담는 가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근길 공유 버스 서비스에서 나가야 퇴근길 셔틀 서비스도 구축하고, 기업과의 제휴를 더 늘려나가는 게 그 방안이다.

장 대표에 따르면 모두의셔틀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은 이미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해당 본사에서는 원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사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남은 좌석이 많아 작년 6월부터 모두의셔틀과 손잡았다”며 “비용을 절감했다는 후문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하는 여정이 가장 효율적인 이동을 만든다”며 “이 믿음에 맞게 종합적인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쿠쿠전자, 프리미엄 밥솥 판매 호조에 ‘방긋’

지난해 전기밥솥 매출 34.7% ↑
‘고화력 IH 무압’ 신기술 적용
‘트윈프레쉬’는 492.5% 경증



쿠쿠 프리미엄 전기밥솥 ‘트윈프레쉬’. 사진제공 쿠쿠전자

쿠쿠전자가 올해 프리미엄 밥솥 시장을 강력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20일 쿠쿠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트윈프레쉬’ 판매 호조에 힘입어 프리미엄 전기밥솥 매출이 전년 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윈프레쉬 매출은 전년 대비 492.5% 성장했다.

쿠쿠전자는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집밥 문화가 확산하며, 밥솥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멀티쿠커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프리미엄 밥솥이 소비자들의 호

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밥솥 중 하나다. 트윈프레쉬의 초고압 기능으로 밥을 지으면 압력 밥솥 특유의 찰지고 쫄득한 밥맛을 낼 수 있으며, 잡곡밥, 수육, 삼계탕 등을 요리할 때 적합하다. 고화력 IH 무압 기능으로 밥을 지으면 식감이 촉촉하고 고슬해 김밥, 덮밥, 초밥, 볶음밥, 비빔밥 등을 만들 때 밥과 재료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압력에 따른 조리는 밥뿐만이 아니다. 초고압에서는 수육, 스테이크, 영양죽을, 무압에서는 갈비찜, 닭찜 등을 조리하면 셰프가 요리한 것 못지않은 수준급의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무압 모드에서는 뚜껑을 열고 음식을 조리하는 오픈 쿡킹이 가능해 조리 도중 요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LGU+, 멤버십 혜택 늘린다

상반기 제휴업체 30% 이상 확대... 금요일 할인을 최대 2배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 중 제휴업체를 30% 이상 확대하는 등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제휴처를 늘리고 고객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제휴처를 기존 대비 30% 이상 확대해 걸쳐, 패밀리 레스토랑, 레저, 테마파크,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으로 서비스 카테고리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이벤트도 병행한다. LG유플러스는 25일 ‘빅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기존 멤버십 혜택 대비 최대 두 배의 할인을 제공한다. U+패밀리샵, LG생활건강샵에서 제공하던 10~15%

의 할인율을 이남은 VIP고객 25%, 일반 고객 20%로 상향 적용한다. 한화아쿠아플라넷에서는 기본 혜택 대비 두 배 높은 30% 할인을 제공한다.

매달 강화된 신규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3월 3일까지는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곤지암리조트 스키장 리프트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본인을 포함해 최대 4인이 동시에 스키 리프트를 반값에 즐길 수 있다.

고진태 LG유플러스 로열티마케팅팀장은 “LG생활건강, LG전자, 곤지암리조트 등 LG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로 고객의 멤버십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중소 “외국인 노동자, 무리한 이직·태업 가장 큰 문제”

중기중앙회 애로사항 현장조사
의사소통·낮은 생산성도 문제

외국인 직원을 둔 중소기업들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외국 인력(E-9) 활용 중소기업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됐

다. 전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 직원이 중소기업체의 대표와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37.9%)’으로 집계됐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부분이다.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치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 시 경력, 근무 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 꼽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지능형 정밀측위기술 개발 4년간 201억 투입

긴급구조시스템 개선 기대

정부가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에 참여할 연구진을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기존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하면 실제 위치와 100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 구조요청자가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위치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은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2년까지 4년간 연구비 총 2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0m 이하로 위치 측정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목표”라며 “정보통신기술이 공공안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이번엔 곰팡이 주스... '벼랑 끝' 남양유업

분유 이물질 논란에 공장 공개 한 달 만에 유아용 주스서 곰팡이 발견... 잇달아 악재 '유통 문제' 책임회피성 사과에 소비자 불신 갑질 논란 이은 최대 위기 가능성



곰팡이가 검출된 유아용 주스 '아이꼬야'.

남양유업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분유 이물질 논란에 이어 최근 유아용 주스 '아이꼬야'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표 품목인 분유 이물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공장 견학을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유아용 주스 이물질 논란이 불거지며 남양유업은 갑질 논란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곰팡이 논란이 된 '아이꼬야'의 판매 중단에 나서면서 갑질 논란으로 위축됐던 매출 축소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이 벌어진

2013년 이후 매출이 매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여왔다. 남양유업의 매출은 2014년 1조1517억원, 2015년 1조2150억원, 2016년 1조2391억 원, 2017년 1조1669억 원을 기록했다.

갑질 논란 이후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급기야 분유업계 1위로 군림해 왔던 명성도 2016년 매일유업에 내줘야 했다.

갑질 논란과 아이꼬야 이물질에 대한 남양유업의 대응 방식도 유사하다. 논란이 발생한 후 나흘이 지난 후에야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양유업은 14일 소비자가 네이버카페에 '아이꼬야' 곰팡이 발생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후 나흘이 지난 후에야 사과문과 함께 판매를 중단했다.

육아카페와 SNS에서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사과에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곰팡이 발생에 대한 사실에 대한 사과보다 변명하기 급급한 문구가 더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

남양유업의 사과문에는 "아이꼬야 우리 아이주스 레드비트와 사과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클레임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구만 보면 곰팡이 발생보다 곰팡이 발생 클레임이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듯한 뉘앙스다.

여기에 "제조 과정이 아닌 배송 중 발생한 핀홀 현상(Pin Hole)이 원인"이라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 제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유통과정상 결함이라는 설명은 책임 소재를 제조사가 아닌 배송 또는 유통사로

떠넘기려는 인상마저 준다.

카페와 SNS에서 소비자들은 "배송 회사 탓만 한다", "2013년부터 불매운동 중이다" 등 남양유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사건이 갑질 논란에 이은 최대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남양유업의 이물질 논란이 최근 전 제품군에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코딱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분유에서 발견됐고, 초코우유 '초코에몽'에서 쇠막대기가 나온 데 이어 곰팡이 주스까지 등장한 것이다. 분유 이물질 논란은 공장 견학 확대를 통해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곰팡이 주스는 수장의 사임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첫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이정인 대표를 선임했으나 취임 1년이 안 된 지난해 말 돌연 사임했다. 현재 남양유업은 이광범 대표집행임원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담당하고 있다. 당분간 대표이사 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상품의 속살

여수 꼬막 불고기 본도시락



불고기랑 만난 꼬막 '맛·영양' 다 잡았다

겨울 제철 식재료인 '꼬막'을 활용한 요리가 주목받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이 겨울 신메뉴로 선보인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은 전국 320여 개 매장의 영업시간 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출시 한 달 만에 약 9만 개가 판매됐다. 10초에 1개씩 팔려 나간 셈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시된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은 제철 식재료를 담아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메뉴다. 겨울을 맞아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남도 여수 꼬막을 삼채 양념으로 무쳐 입 안 가득 퍼지는 향긋함과 쫄깃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남도의 조리법으로 구워낸 '광양식 바삭 불고기'를 한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담아낸 반반 메뉴로, 바다와 육지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본도시락 김태현 본부장은 "본도시락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 활용해 합리적 가격... 혼밥족 인기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현지의 고품질 식재료를 활용한 계절 메뉴를 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는 외식업계에서 인기 식재료로 떠오른 꼬막을 활용했다"며 "특히 꼬막은 손질과 요리가 어려워 제철이라 해도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식재료인데 본도시락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을 통해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꼬막의 인기에 힘입어 본도시락 인기 메뉴 순위도 바뀌었다. 2015년 출시 이후 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광양식 바삭 불고기' 도시락을 제치고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이 본도시락의 베스트 메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제철을 맞은 여수 꼬막과 불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메뉴 구성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본도시락 매장은 물론, 배달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선한 제철 꼬막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판매 증가 원인 중 하나다.

김 본부장은 "1인 가구와 혼밥을 즐기는 이가 증가한 것 역시 인기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꼬막 요리를 홀로 즐기기엔 양이나 가격 부담이 큰데 여수 꼬막 불고기 도시락은 1인분씩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어 맛과 영양, 가격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며 "본도시락은 프리미엄 도시락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맛과 건강을 고려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미세먼지용 마스크 할인

이마트는 30일까지 마스크 전 품목 2개 구매 시 10% 할인, 3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인 크리넥스 황사 마스크 KF80·KF94(각 3입)는 각 5400원·5600원에, 코디 황사 마스크 KF80·KF94(각 3입)는 각 4500원·5000원에 판매한다.

삼성물산 준지, '합성' 테마 F/W 라인 공개

캐나다구스 협업 아우터 출시

울봄·여름 시즌 첫 여성 라인 론칭을 앞둔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준지'가 '2019 파리 컬렉션'에서 가을·겨울 시즌 라인을 선보였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18일(현지시간) 준지가 파리의 명소 '팔레트 도교'에서 가을·겨울 시즌 라인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준지는 가을·겨울 시즌 콘셉트를 'SYNTHESIZE(합성)'로 정하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패턴이 결합된 의상을 소개했다. 파리 컬렉션에서 준지는 남성 18작장, 여성 22작장 등 총 40작장의 의상을 공개했다.

울봄·여름 시즌에 첫선을 보이는 여성 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여성복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준지의 가을·겨울 시즌 테마인 'SYNTHESIZE'는 탈부착이 가능한 패딩 후드, 테일러링된 야상 점퍼 등 스포티(Sporty) 아이템을 접목한 시도



와 앞뒤가 다른 실루엣, 길이가 다른 스커트 등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했다.

준지는 201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특이 인기가 높은 아우터, 캐나다구스(Canada Goose)와 협업한 아우터도 내놓을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정식 출시 예정인 준지-캐나다구스 컬래버 상품은 아우터와 스웨터류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베이징, 도쿄, 뉴욕, 런던 등 글로벌 캐나다구스 매장 등 20여 개의 해외 백화점·편집숍에서 한정판(Limited Edition)으로 판매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늦장에 과징금 피했다

작년 3월 8300만 원 과징금 법원 "처분 시한 넘겨 무효"

2011년 조사 시점으로 봐 5년 내 과징금 처분했어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 대응 덕에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공정위가 처분 시한을 넘겨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산업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점을 축소했다며 지난해 3월 애경산업에 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처분 시한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후 5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애경산업은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1년 10월이기 때문에 처분 시한 5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경산업은 2011년 8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9월부터 제품을 회수했다"며 "2013년, 2017년경에 해당 제품이 마트 내에 진열돼 소비자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



었다거나, 실제로 구매했다고 해도 이는 표시행위가 완료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에서도 처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마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했다.

1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분사에 이어 17일 SK케미칼 울산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글로로이소시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잠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를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파인아시아·유진자산, 대표이사 '이중 등기이사' 논란

유진자산 이직 박민호 전 대표 "등기 정리해달라" 요구했지만 파인아시아 '한컴' 外人 주주 갈등 신임 대표 선임 못하며 정리 안돼

지난해 여름에 시작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둘러싼 잡음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자리는 반 년 넘게 공백인 상태로 등기이사 명단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박민호 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유진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시점은 지난해 7월 초다. 문제는 박민호 전 대표이사의 이직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파인아시아운용의 등기이사로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등기부등본상(18일 기준) 그는 파인아시아운용과 유진운용 두 곳의 등

파인아시아주주현황 (단위: %)

| | |
|---------------------------|------------------|
| (주) 한글과 컴퓨터 | 541,800 (12.6%) |
| 김정명 | 500,000 (11.63%) |
| BSDON Pte. Ltd | 401,000 (9.33%) |
| Winsome Limited | 399,000 (9.28%) |
| Hopkines Holdings Limited | 376,400 (8.75%) |
| WANG QI-ZHI | 370,000 (8.6%) |
| Merit One Limited | 361,800 (8.41%) |
| D&R Capital Management | 331,000 (7.7%) |
| SOL Management LLP | 319,000 (7.42%) |
| 김진원 | 300,000 (6.98%) |
| Horizon Power Limited | 200,000 (4.65%) |
| 문영수 | 100,000 (2.33%) |
| 최용 | 100,000 (2.33%) |

기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박 대표는 유진운용에 지난해 7월 2일 정식 취임, 이틀 뒤인 7월 4일 등기임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파인아시아운용은 박 대표가 유진운용에 등기임원으로 올라간 당일 박 대표를 자사 대표이사로 명기한 주요경영상황 공시를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

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박민호 대표는 전 직장인 파인아시아운용 쪽에 등기 정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정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유진자산운용으로 옮기기 전 4월 19일자로 파인아시아운용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6월 초 실질적으로 회사를

그만뒀고, 7월에 현재의 유진자산운용으로 이직했다"면서 "이후 등기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자체가 모호해 이중 등기라도 내부 문제로 서류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특이 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양쪽 회사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법률 해석이 나올 수는 있다.

파인아시아운용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파인아시아운용은 노승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파인아시아운용 관계자는 "주총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등기임원도 정리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결론이 나와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이후 주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

사 결론도, 주주총회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는 점이다.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4월 유상증자를 통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컴은 최대주주에 오른 직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해당 심사는 일반적인 처리기한(2개월)을 훌쩍 넘겨 아직도 미정인 상황이다.

복잡한 주주구성과 함께 한컴과 일부 외국인 주주와의 갈등이 결집되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주 간의 갈등으로 주총이 파행을 겪으면서 사내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이 불발하기도 했다. 이후 재무제표는 가까스로 승인됐지만 대표이사는 당초 후보로 올라온 인물이 한컴 측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을 둘러싼 M&A 구조가 복잡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지배구조 개편·스튜어드십 코드·주주행동주의 영향

저평가 지주사, 주가 반등 기미 '솔솔'

내부거래 등 불확실성 해소 기대 한진칼 18일 전일대비 4.16% ↑ 롯데·현대중공업지주 소폭 상승 지주사 주가 흐름 연동 가능성도

저평가에 시달리던 지주사들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과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행동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18일 종가 기준 전일 대비 1250원(4.16%) 오른 3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지주(0.40%), 현대중공업지주(0.41%), 한화(0.15%) 등도 소폭 반등했다.

국내 주요 지주사들의 순자산가치(NAV) 대비 주가 할인율은 약 48%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내부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 리스크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한화케미칼과

1월 지주사 주가 추이

| 지주사 | 18일 종가(원) | 이변달 등락률(%) |
|---------|-----------|------------|
| SK | 266,500 | 6 |
| LG | 75,500 | 11 |
| 롯데지주 | 50,700 | 2 |
| CJ | 118,000 | 2 |
| 두산 | 118,000 | 13 |
| 한화 | 33,600 | 8 |
| 한진칼 | 31,300 | 7 |
| 현대중공업지주 | 365,500 | 8 |

※ 출처: 한국거래소

한화생명의 지주사인 한화는 주가할인율이 -72.1%에 달했고, CJ(-68.4%), LG(-60.1%), 롯데지주(-55.8%)도 극심한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기업들 사이에서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불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

과도한 임원 보수 등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확대됐다"며 "지주사는 여러 상장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가 개편된다면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 SK텔레콤, 삼성 등은 개편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한편 증권가는 롯데지주, 현대그린푸드, 대림산업 등을 지배구조 개선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꼽고 있다. 이상현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자회사 분할 및 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재탄생했다"며 "올해도 롯데지주에스, 롯데상사 등을 분할 합병한 지주사 출범으로 순환 출자 및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범 기자 modest12@

작년 대차거래 102억 株 '사상 최대'

지난해 4분기 증시 급락 영향 IT부품·계약 중심 낙폭 커져

지난해 주식 대차거래가 IT·계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대차거래는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차거래는 보통 주가 하락에 투자자들이 늘어날 때 증가한다. 대차거래가 무조건 공매도로 이어지진 않지만,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해석된다. 실제 증시는 대차거래에 따라 공매도 증가 여부를 판단하며, 증가는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작년 말-올해 초 대차거래 감소와 공매도 거래량 비율이 감소되고 있어, 관련 지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차거래(체결기준) 규모는 전년보다 31.2%(2437만 주) 증가한 102억3700만 주를 기록했다. 대차거래가 100억 주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지난해 4분기 증시 급락이 대차 거래 급증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의 해당 기간 대차거래는 30억6928만 주로 전 분기보다 35.9% 급등했다. 코스피는 연초를 기점으로 내리세를 보였고, 6월과 10월 대규모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차거래가 늘고 낙폭을 키운 업종은 IT와 계약이다.

코스피 시장은 전기전자가 12억309만 주로 1위였다. 운수장비(7억7407만 주), 금융업(5억9010만 주), 운수창고(5억1014만 주), 기계(5억972만 주), 화학(3억9641만 주), 유통업(3억8433만 주)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IT부품 업종이 3억972만 주로 가장 많았고 계약(2억3900만 주)이 2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대차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5억4005만 주)였다. 삼성중공업(3억3160만 주), 팬오션(2억6612만 주), KODEX 200(1억9542만 주), 두산인프라코어(1억9249만 주), 한화생명(1억6592만 주), SK하이닉스(1억6034만 주)가 후순위에 위치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대차거래가 두드러졌다. 신라젠(9326만 주)과 셀트리온헬스케어(7769만 주)가 각각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모(6289만 주), 파라다이스(6115만 주), 제이콘텐트리(5951만 주)도 대차 거래 상위 종목이다.

다만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하락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인 대차거래 이슈가 증시 반등을 이끌지 주목된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먼저 생각한 대목은 거래량 중 공매도 거래량의 비율"이라며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공매도 거래량 비율)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jim@

'CP발행' 두산인프라코어, '공모채'로 방향 선회

CP 잔액 총 3600억으로 재무 건전성 경고등 켜져 작년 유동성 확보·실적 개선 영향 차입 상환 자신감

지난해까지 사모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공모 회사채로 방향을 선회했다. 과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단기사채를 끌어썼다면 이젠 재무구조 변화를 꾀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7일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모 회사채 발행 조건을 확정했다. 기존 500억 원이던 발행액은 주요예측 후 8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570억 원을 발행한 후 3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 전까지 두산인프라코어는 주로 CP를 발행해 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산인프라코어의 CP 잔액은 약 36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만 142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이후 3분기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총 2855억 원을 발행했고, 그 여파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두산인프라코어 국내 본사의 부채비율은 3분기 기준 2016년 168.6%에서 지난해 274.23%까지 급등했다. 이번 증권신고서에 기록된 총차입금 대비 1년 내 상환 비중 역시 47.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가 과거 단기차입금을 선호한 이유는 해외 자회사 설립 확장에 들어간 재무적 지원을 비롯해 중국 시장의 실적 부진 등이 겹친 결과다. 이후 2017년 50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등 재무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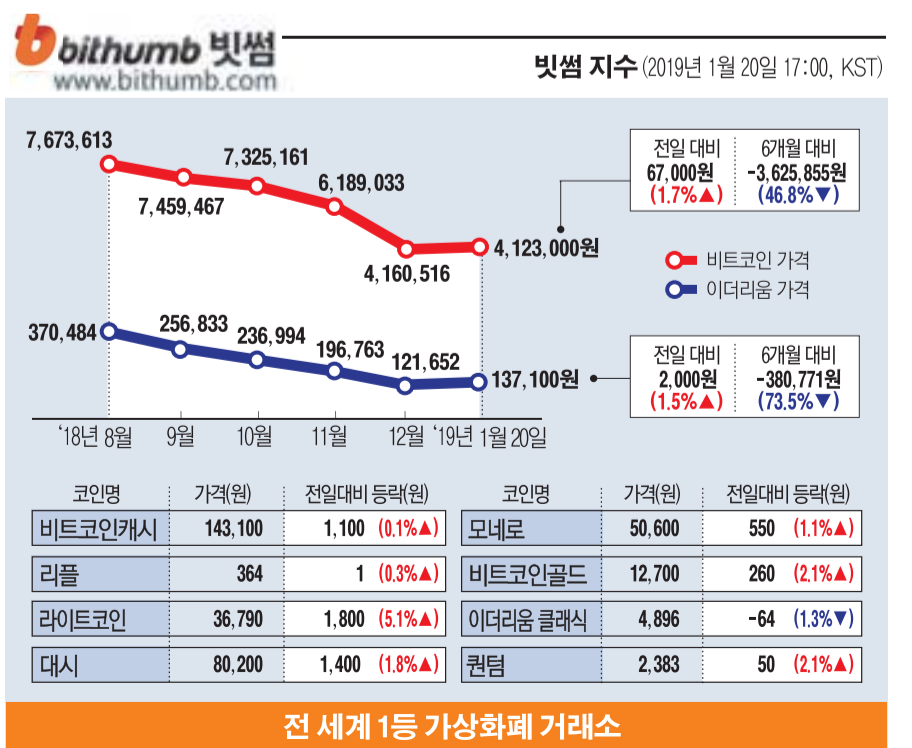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6월까지 300억 원에 머물던 공모채는 최근 3개월 새 1400억 원 가까이 발행액이 늘어난 모습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신용등급이 BBB등급으로

비우량채일 뿐더러 공모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자사의 위험성을 공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공모채를 늘리는 데는 차입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하는 880억 원은 단기차입금인 기업어음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확보된 유동성과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차입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공격기계 사업부문 매각을 시작으로 지난해 두산발켓 지분 일부 매각까지 여러 루트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또 중국의 수요 개선과 국내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이 더해져 실적 역시 개선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난해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88% 증가한 5조9468만 원을, 영업이익은 39.28% 오른 7061억 원을 기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작년 경기 아파트값 온도차... 서울 인접 지역만 후끈

접근성 따라 집값 상승 성남·광명 '최고' 평택·오산 '최저'
건설사 1분기 분양 잇따라... 서울 인접지 중심 분양 주목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값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일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서울과 떨어진 지역들은 약세를 보였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값은 평균 3.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6.23%가 상승한 성남시였고 이어 광명시 14.89%, 안양시 8.46%, 하남시 8.38%, 과천시 7.82%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다.

반면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지역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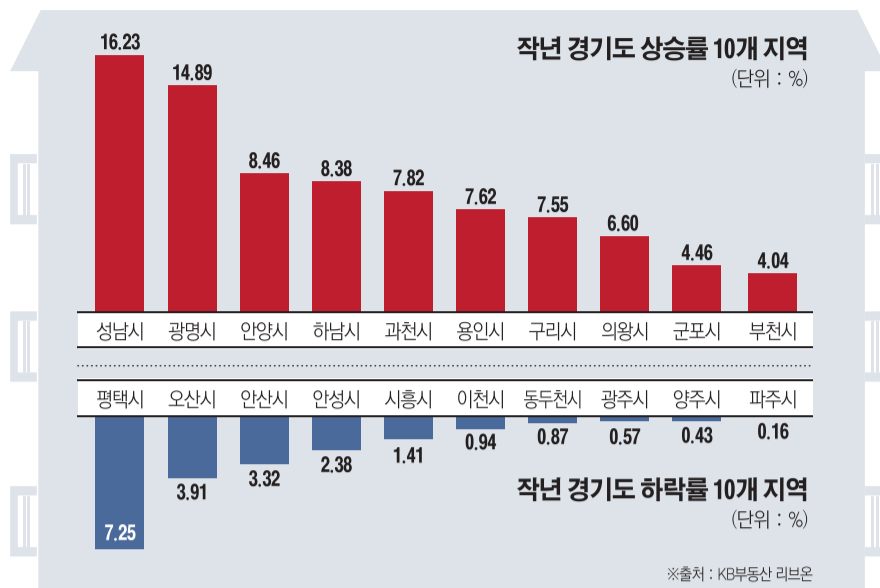
경기도에서 서울과 가장 거리가 먼 평택시는 지난해에만 7.25%가 내렸고, 오산시

3.91%, 안산시 3.32% 안성시 2.38% 시흥시 1.41%, 이천시 0.94% 등 서울과 먼 곳들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일부 지역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곳도 있지만, 대체로 서울 접근성과 교통 호재에 따라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도 내에서도 남, 북 지역보다는 동, 서 지역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오른다면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연초부터 모험을 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물량 공급에 나선다.

우선 하남 갑일지구 B3블록과 B4블록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용면



적 74~84㎡ 1173가구를 공급하는 가운데 17일 1순위 청약에 받았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지역 우선(30%)은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대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대에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는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지상 7층부터 18층까지는 색션

오피스 506실이 들어선다. 지상 20층부터 49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19~84㎡ 1050실이 조성되며, 최상층 49층에는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로 꾸며진다. 중동신도시 내 옛 홈플러스 부지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도 단지와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2월에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19-30일원에 비산2구역에 재건축하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공급하고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전용면적 92~102㎡ 1078가구를 3월 선보인다. 우미건설 위례신도시 A3-4b블록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875가구도 3월 분양 예정이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은 광명시 철산주공 7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으로 131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98㎡ 697가구를 분양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9·13 대책에도... 분양 인기 지역 '청약 전쟁'

작년 6149가구 분양, 18만명 몰려 2017년 대비 2.4배 이상 높아
올해 첫 분양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평균 130대 1 작년 기록 훌쩍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을 갖추기 까다로워졌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주변 단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서울에서 일반공급된 분양단지는 6149가구, 총 청약자 수는 18만7807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0.54대 1이다.

이는 2017년 서울지역 평균 경쟁률(12.9대 1)과 비교해 2.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분양한 '노원꿈에그린'으로 8월 실시한 60가구(일반공급 기준) 모집에 5877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개관한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다. 뉴스시스

명이 청약해 97.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의 청약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150가구 모집에 총 1만3743명이 몰려 9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은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센트럴아파트' (79.90대 1),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79.63대 1),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트북번역 (59.5대 1)이 뒤를 이었다.

올해 첫 분양인 경기 하남시 '위례포레자이' 역시 1순위 청약에서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신청해 지난해 1위 기록을 뛰어넘는 평균 130.3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방과의 온도차는 컸다. 지난해 전국 분양은 13만2550가구 모집에 198만9811명이 몰리며 15.01대 1(1순위 14.86대 1)을 기록했다. 전년의 전국 경쟁률 12.43대 1(1순위 12.23대 1)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서울(30.54대 1)과 전국(15.01대 1)의 경쟁률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소희 기자 ksh@



마포·송파 등 올해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파격적 구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가격 떨어져도 거래 한산 냉랭한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지역 10곳 중 한 곳도 포함 안돼
매매액 -0.1%... 10주 연속 하락
매수우위지수 47.1로 2년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여러 통계 지표에서도 자취를 감췄고, '상승' 자리도 지방에 내렸다.

2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4일 기준 주간 동향에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지역 10곳에 서울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대구 남구로 상승률은 1%를 밑돈 0.39%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남구(0.29%), 인천 계양구(0.21%), 대전 유성구(0.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정부지로 치솟을 때와 정반대되는 분위기다. 당시에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주요 지역 10곳 대부분이 서울 자치구였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래 심리 지표도 정체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를 보면 47.1로 나타났다. 2016년 2월 29일 주간 수치인 45.7 이후 최저치다.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를, 100 미만 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를 의미한다. 경북

과 강남도 각각 41.5, 53.4로 떨어졌다. 지표 그대로 팔 사람은 있으나, 살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매매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의미하는 매매거래동향지수도 하락세다. 14일 기준 서울의 매매거래지수는 1.2를 기록했다. 기준치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함' 비중이 높다는 의미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경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012년 9월 3일 주간 수치인 1.0 이후 최저치다. 경북의 매매거래지수는 1.4를, 강남은 1.0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로 10주 연속 하락했다. 경북과 강남도 순서대로 -0.07%, -0.10%를 기록했다. 자치구 25개 가운데 금천(0.01%), 종로·구로구(0.00%)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관계자는 "공급도 많았고, 과세 부담, 비수기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매수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상승률 10이 모두 서울이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 일부 지역, 광주 등 지방으로 (상승률 톱 순위) 바뀌는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 6016가구가 공급된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2349가구, 지방 366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엄부평',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에일린의뜰', 강원 춘천시 은의동 '춘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등 12개 사업장에서 청약을 진

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곳에서 진행된다. 22일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 '스마트리치'를 시작으로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 테라펠리스컨대2차', 24일에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공공분양),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경북 경산시 평산동 '사갈의마을씨엘' 등이 예정돼 있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0곳이다. 21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

자이아파트',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더강남(1BL)', '시티프라디움더강남(2BL)',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 25일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A3-1) 등이 대표적으로 예정돼 있다.

5개 단지가 모두 25일에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 중이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A3)', 동구 방촌동 '방촌역태왕아너스' 등이다.

| 날짜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1/24 (목) | 1/25 (금) | | | | |
|----------|----|----|-------|-------|---|----------|----------|------------------------------|-----|------------------------|----------------------|
| 1/21 (월) | 접수 | 경기 | 의정부시 | 의정부동 | 의정부스마트트라이움 1순위 | 1/24 (목) | 대구 | | | | |
| | | | 하남시 | 갑일동 | 하남갑일B3(공공분양) 2순위 하남갑일B4(공공분양) 2순위 | | | 달서구 | 감삼동 | 대구빌리브스카이 1순위 | |
| | | | 경남 | 진주시 | 평거동 | | | 진주평거동메이힐스 1순위 | 동구 | 신암동 | 동대구에일린의뜰 2순위 |
| 1/22 (화) | 접수 | 경기 | 의정부시 | 의정부동 | 의정부스마트트라이움 2순위 | 1/25 (금) | 대구 | | | | |
| | | | 경남 | 진주시 | 평거동 | | | 진주평거동메이힐스 2순위 | 신천동 | 온의동 |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1순위 |
| | | | 인천 | 부평구 | 산곡동 | | | 쌍용더플레티엄부평 1순위 | 창원시 | 경화동 | 창원경화베스티움 1순위 |
| 1/23 (수) | 접수 | 경기 | 화성시 | 송산면 | 송산신도시대방노블랜드5차(EAA5) 1순위 송산신도시대방노블랜드6차(EAA12) 1순위 | 1/25 (금) | 대구 | | | | |
| | | | 인천 | 부평구 | 산곡동 | | | 쌍용더플레티엄부평 2순위 | 달성군 | 구지면 |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A3) |
| | | | 대구 | 동구 | 신천동 | | | 동대구에일린의뜰 1순위 동대구에일린의뜰 2순위 | 방촌동 | 방촌역태왕아너스 ♣ 방촌역태왕아너스 | |
| 1/24 (목) | 접수 | 경기 | 성남시 | 고등동 | 성남고등A1(국민임대) 1,2,3순위(~1/25) | 1/25 (금) | 대구 | | | | |
| | | | 화성시 | 송산면 | 송산신도시대방노블랜드5차(EAA5) 2순위 송산신도시대방노블랜드6차(EAA12) 2순위 | | | 신천동 | 신암동 | 대구빌리브스카이 2순위 | |
| | | | 경남 | 진주시 | 평거동 | | | 진주평거동메이힐스 2순위 | 창원시 | 경화동 | 창원경화베스티움 2순위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법정공방 2R

‘벌금 145억’ 1심 판결 불복 양측 항소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은 BMW코리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MW코리아의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BMW코리아에 앞서 검찰도 일찌감치 항소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BMW코리아의 항소는 예견됐던 바다. BMW코리아 측이 1심 선고 직후 법적 대응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301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벌금 145억 원이 선고된 점 등에

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6명도 모두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현직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인증을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윤한술 기자 charmy@

‘두 딸 학대 의혹’ 30대 엄마 무죄

대법 ‘자녀 진술 모순’ 원심 확정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여름 막내 딸(당시 6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첫째 딸(당시 10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기소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고소로 이뤄졌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2016년 7월 아내와 아이들의 주거지에 오자 김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이 맞소송을 내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자녀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막내 딸이 맞았다는 시기가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점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시 ‘제로페이’ 4월 법인용 출시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 착수

서울시는 4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정식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에 가깝게 낮춘 간편결제 서비스다. 결제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시금고(市金庫)인 신한은행과 함께 4월 15일 출시를 목표로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시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외에도 어린이집 등 운영 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법인도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청·구청이 신용카드를 지출하는 일상적인 경비와 민간법인 지출의 약 50%를 제로페이로 전환하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경우 카드수수료가 수억 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소희 기자 ksh@



사랑이 필요한 때 모금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91.7도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시

‘주가조작’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손해배상 모면

법원 “소멸시효 지나 책임없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유회원(69)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 씨의 범죄와 옛 주주들의 손해에 인과관계

는 인정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시주 조합원이던 강모 씨 등 40여 명이 유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씨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2억9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강 씨 등은 “불법 주가조작으로 주

가가 폭락해 정상적인 액수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38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의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강 씨 등은 아무리 늦어도 유 씨에게 1심 이 유죄를 선고한 2008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1. 21. 1월 19일

특별한 매거진의 고집,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가장 크고도, 깊고도, 넓고도, 멋지다!

오랜 세월 동안의 삶, 지극히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다!

세계를 호령한 여왕, 김현숙

서울시 보훈대상자, 김현숙

1958년, Retro

남들이 모르는, 누구보다 노련하게, 그리고 기쁨을 선사하는 고수가 된다

Guru

COVERSTORY 광내고 기름칠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일 - 구루(guru)가 되기 위해 응진 연술협동조합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정갑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상순 씨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많은 성공공예작가 이소라 씨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론

월레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엔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말년타임' 즉 발병 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뇌파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속인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관익(徐權益)·4대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겨울 갈바람이 맨처음 불어오는 산골이다. 마을의 품은 넉넉해 한창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짐작보다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비아호르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중용 씨. 그는 이 마을에 정착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이 이따금 이곳으로 향하는 귀촌인도 많다고,

신라비가 만난 사랑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건다는 말이 된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요만(약) 실려낸 엄마의 음식 '자만치' 해외까지 알려고피 한식 전도사 배우 김수미

미나림이 역사서를 만들고 철재가 찾아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폭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푹 떨어진 날, 부산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으리겠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사탕국밥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사탕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워길래 '고금리 안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동하게 요즘처럼 저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님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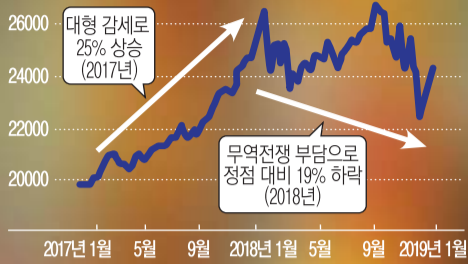
시니어 밎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당뇨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아유리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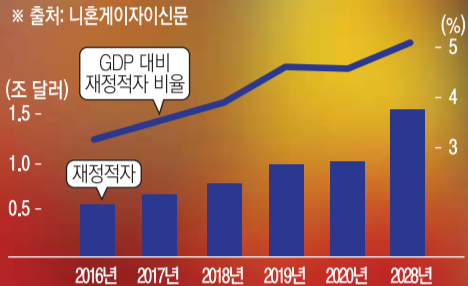
제 발등 짚은 '美 우선주의' ... 트럼프發 '3월 위기설' 고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우지수 추이



미국 연도별 재정적자 및 전망



무역전쟁 장기화·경기불안·탄핵론... 세계경제 '비관론' 돌아서
사상 최대 재정적자·최장 셋다운... 임기응변식 정책 新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현지시간)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감세로 '경제 중시' 노선을 분명히 한 취임 1년째에 비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기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돌아섰고, 경기 불안과 탄핵 위험은 재선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지지율에 얽매어 임기응변식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미래와 세계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0일까지 30일째로 사상 최장기로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 차질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직원 약 38만 명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황. 워싱턴D.C의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월 중순부터 인력의 70%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와의 대립으로 관련 예산이 끊겼기 때문이다. 30%의 인력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선 불멘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 '3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한 '90일 유예'는 3월 1일이 기한이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7-8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다. 오는 30-31일에는 중국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은 양측의 협상이 무산되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다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도 있다. 3월 초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

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쓸 자금이 고갈된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채 신용등급 강등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금융 시스템에선 적신호가 깜빡이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트럼프는 월가 거물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지에 힘입어 취임 1년 만에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감세를 실현했다. 이런 친기업·친경제 노선이 평가를 받으면서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017년 25%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2018년의 주가는 정점 대비 19%나 하락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부상했다. 재정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 달러로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다.

눈앞의 호황을 연출한 호재들이 되레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은 이미 올해 3000억 달러가 넘어 주요국 중에선 최대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10년 후에는 9000억 달러가 넘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의 왜곡이 낳은 장기 금리 상승을 세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5G 시대에 대비한 트럼프의 구상은 차세대 통신망을 정부 주도로 하기로 하고 인프라 투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중국에 뒤처진 위기감만 앞설 뿐 재원도 없다. 재정 불안이 미국의 경쟁력까지 좁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과 여소야대 의회, 러시아 스캔들 의혹 등 난제에 직면한 트럼프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계속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게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사랑을 쫓는 자, Daniel Han-hy

10 JACK THE RIPPER 10TH ANNIVERSARY MEMORIAL SHOW

그가 돌아왔다! 뮤지컬 '잭더리퍼' 10주년 기념 공연!

Jack the Ripper THE MUSICAL

잭더리퍼

2019.1. 25 ~ 3.31 |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연가준 최성원 김동하 원희 현 신성우 서영주 김립애 이진영 반영가 김준현 정민립 장영민 장대용 박주현 소나 스테파나 김여진

中 다음 타깃은... 가슴 졸이는 동맹국

보호무역 압박... 안보 청구서
韓·日·유럽 전통적 우방들 긴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이전 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의 현실주의자들이 퇴임하면서 트럼프의 폭주에 더 이상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2020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는 국경 장벽 갈등으로 인한 미 연방 정부 셋다운(일시 업무중단)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병대 출신인 매티스 전 장관은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 때문에 2017년 1월 취임 당시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려는 트럼프의 공약에 긴장했던 동맹국들이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등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와의 불화가 강해지면서 그도 결국 사표를 던졌

다. 트럼프 광기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자국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2월 이후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트럼프의 목적은 지지 기반인 제조업 노동자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다. 이에 일본에 대한 자동차 수출 물량 규제 등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겨냥, 일본에 중국산 수입 제한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지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전액 부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도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비 부담을 2배로 증액하도록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 같은 트럼프의 '광기'에는 러시아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조바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게임·新사업’ 쌍두마차 끌고 글로벌 진격



④ NHN엔터

2011년 5월 야구9단

2013년 2월 우파루마운틴 for Kakao

2014년 1월 라인디즈니 썬무썬무

11월 크루세이더 퀘스트

‘프렌즈팝’ ‘야구9단’ 등 국내 대표 히트게임 배출

출시 게임마다 흥행 행진

IT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기업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는 2019년 기해년을 맞아 ‘게임과 신사업’을 주요 키워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NHN엔터는 2000년대 초 인터넷 시장을 장악했던 기업인 NHN에서 게임사업 부문인 ‘한게임’이 분할돼 2013년 8월 1일 탄생한 IT기업이다. 한게임은 국내에서 국민 퍼즐게임의 계보를 잇는 ‘프렌즈팝’과 SNG 장르 ‘우파루마운틴’, 스포츠 게임의 ‘피쉬아일랜드’와 ‘야구9단’ 등 수많은 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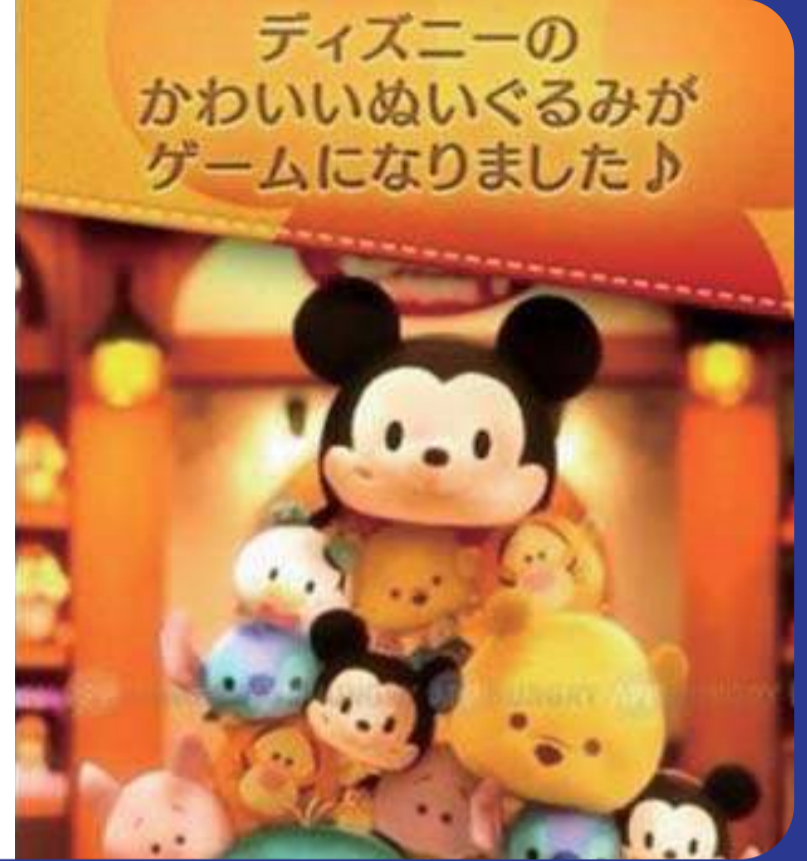
국내 첫 온라인 게임포털 ‘한게임’ NHN서 분할 독립
日 자회사 개발 ‘썬무썬무’
단일게임 매출 1兆 성과

트 게임을 배출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원빌드’로 제작되어 글로벌 20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크루세이더퀘스트’, 웹메이드 전략 삼국지 게임 ‘킹덤스토리’ 등 여러 모바일 게임들이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NHN엔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의 자회사 NHN플레이아트는 모바일 게

임 개발을 주력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00년 설립 이후 꾸준히 쌓아온 개발력과 게임시장에 대한 노하우로 ‘라인디즈니 썬무썬무’와 ‘요괴워치뿌니뿌니’, ‘컴파스’ 등 출시하는 게임마다 연이어서 일본 이용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중 ‘라인디즈니 썬무썬무’는 2014년 1월 일본에 출시돼 현재까지 애플 앱스토어 매출 10위권을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단일 게임으로 매출 1조 원을 넘긴 사례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드물고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10월 요괴워치 뿌니뿌니

2015년 8월 프렌즈팝 for Kakao

PC 넘어 모바일... 올 최대 기대작 ‘크리티컬 옵스’

모바일 게임사로 체질전환

NHN엔터는 지난해 PC온라인 게임 전문회사에서 ‘모바일’ 게임 전문사로 체질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원빌드로 제작된 ‘크루세이더퀘스트’와 ‘킹덤스토리’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에서 새롭게 출시된 모바일 대전게임 ‘컴파스’가 앱스토어 최고 매출 6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 출시 게임의 성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선보인 ‘피쉬아일랜드:정령의향로’ 역시 출시 6일 만에 매출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 피쉬아일랜드는 현재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뉴시 게임 장르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10월에 글로벌 출시된 ‘RWBY:루미티아레나’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모바일 FPS ‘크리티컬 옵스:리로드’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리듬액션 게임 ‘피쉬아일랜드’
출시 6일 만에 매출 10위권
‘RWBY’ 북미지역 매출 신장세
게임 플랫폼 등 기술사업 확대

상반기 정식 출시 예정인 ‘크리티컬 옵스: 리로드’는 글로벌 4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크리티컬 스트라이크’의 후속작이다. NHN엔터는 아시아권 이용자를 주요 공략 타겟으로 설정하고 핀란드 게임개발사 ‘크리티컬 포스’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NHN엔터는 게임 외에도 신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는 오랜 기간의 게임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게임 콘텐츠 외에 플랫폼과 솔루션 등 기술 부문에서도 점차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8’에서 공개한 ‘게임베이스 2.0

(Gamebase 2.0)’은 NHN엔터의 오랜 글로벌 게임 사업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완성한 TOAST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게임센터와 같은 글로벌 마켓의 표준인증과 결제, 운영, 분석 도구 등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그레이드된 ‘게임베이스2.0’에는 별도의 분석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없이도 확인 가능한 ‘운영 지표’ 서비스가 추가됐고, 매출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밸런싱 지표, 푸시 및 점검 영향도 분석 등 게임사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지표를 추가 비용없이 확대 제공한다.

김동훈 NHN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사업부 이사는 “‘TOAST’의 모든 상품이 글로벌 게임 서비스에 맞춰 구성된 만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발사, 또는 한국으로의 진출을 앞둔 중국, 일본 등 해외 개발사에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16년 4월 킹덤스토리

12월 컴파스

2018년 7월 피쉬아일랜드 : 정령의향로

10월 RWBY : 루미티아레나

금융플랫폼 ‘페이코’ 등 비게임 부문 신사업 박차

IT기술기업 도약 발판

NHN엔터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 8963억 원, 누적 영업이익 521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내달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을 더할 경우 지난해 총연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성중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실적은 매출 3623억 원, 영업이익 24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7%, 11% 증가할 것”이라며 “커머스(에이컴메이트홀딩스, 1300K 등), 엔터테인먼트(벅스 음원 비즈니스 중심), 기

커머스, 엔터, 결제·광고 등 비게임사업 4분기 실적 호조
지난해 매출 1兆 넘길 전망
4월 ‘NHN’으로 사명 변경

술(PNP시큐어 보안솔루션 비즈니스 중심), 결제·광고(NHN한국사이버결제, 페이코, 인크로스 등) 등 비게임 부문의 4분기 성수기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NHN엔터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이름을 ‘NHN’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우진 대표 역시 2일 신년사를 통해 직접 언급했다. NHN은 NHN엔터의 전신으로 2000년 한게임과 네이버의 합병에 따라 출범한 기업명이다. 2013년 NHN엔터가 출범하고, 남아있던 NHN이 ‘네이버’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NHN상표권은 NHN엔터가 확보하고 있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 때 정권이 변경되면 4월부터 사명이 바뀔 예정”이라며 “한국 IT산업에서 NHN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IT기술 기업으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반값 할인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건강한 기해년이 되고자 프리미엄 할인 행사!!!



- 가정용**
- 제품명 뉴아쿠아픽(좌측)
모델명 AQ-300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제품크기 150x90x210mm
맥동수류 2,200회/분
- 휴대용**
-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모델명 AQ-220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제품크기 70x100x300mm
제품무게 440g(본체 260g, 충전기 180g)
맥동수류 1,400회/분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아쿠아픽 제품만의 강력한 맥동수류

아쿠아픽의 강력하고 뛰어난 맥동수류(탁탁 끊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잇몸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 | | | |
|--------------------------------------|-----------------------------------|---------------------------|--|--|
| <p>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p> | <p>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p> | <p>임플란트 주위염 예방</p> | <p>하나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 (4개의 제트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장치, 임플란트, 보철물 등의 장착 환자 추천 ● 분당 평균 왕복 2,200회 맥동수류 ● 구강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 기능성/편리성/만족성을 모두 갖춘 뉴아쿠아픽!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조작 -수압 조절 가능한 다이얼 -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호스 (한국·일본·유럽연합통합전기용품안전인증) | <p>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해진 무접점 충전방식 ● 24시간 완충 시 최대 2주 사용 가능 ● 0.6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60g)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 인체공학적 제트립 설계 ● 세가지 세정모드 -NORMAL 일반적인 세정모드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정모드 -PULSE 잇몸 마사지 전용 모드 |
|--------------------------------------|-----------------------------------|---------------------------|--|--|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전 평생 학생...공부는 일생을 두고 오르는 등산길”

‘공부유감’ 책 낸 이창순 휴비스 인사기획팀장

회사 내서 부서 이동 때마다 해당 자격증 취득 ‘샐러던트’ 업무 관련·외국어·독서...직장인의 공부 3가지 방향 제시

“저는 평생 학생입니다.”

휴비스의 이창순 인사기획팀장은 입사 이후에도 31년째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진정한 샐러던트(Saladent)다.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공부유감’이라는 책까지 냈다.

샐러리맨(Salaryman)과 스튜던트(Student)의 합성어인 샐러던트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직장인’을 의미한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직무 능력 향상 또는 퇴사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샐러던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생 학생’을 자처하는 이 팀장에게 공부 방법에 대한 ‘팁’을 배워 본다.

이 팀장은 직장인들의 공부를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돛단배’에 비유한다. 직장인들이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출렁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Survival)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이런 망망대해에서 공부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바로 △업무와 관련된 공부 △외국어 공부 △독서를 통한 공부다.

이 팀장은 먼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공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팀장은 주어지는 업무에 따라 공부를 시작했다. 생산 업무에서 인사 업무로 이동하게 됐을 때에는 방송통신대에서 4년간 경영학을 공부했다.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는 2년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했다. 교육 업무를 위해서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비롯해 MBTI 심리검사 자격, DISC, STRONG 검사 자격 등 관련 분야 자격 공부를 해왔다.

그는 외국어 공부 역시 회사의 업무와 연관시켰다. 그는 “외국어를 활용하는 업무라면 반드시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의 해외 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관



지난해 직장인의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공부유감’이라는 책을 낸 휴비스 인사기획팀 이창순 팀장. 이 팀장은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공부의 세계를 조화시켜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휴비스

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독서를 통한 공부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독서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 팀장은 소설 등을 읽을 때와 공부를 위해 책을 읽을 때의 독서 방법을 달리한다고 전한다. 그는 “공부를 위한 독서를 할 때에는 목표로 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비슷한 책들을 여러 권 읽는데 그러면 깊이가 조금씩 깊어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평생 학생으로 살아갈 예정이다. 그는 “제가 ‘공부유감’이라는 책을 썼듯이 ‘공부는 일생을 두고 오르는 등산길’이라고 한 것처럼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며 “무슨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공부의 세계를 조화시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수출입銀 경영기획본부장에 권우석 전 해양구조조정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에 권우석 전 해양구조조정본부장이 선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인사에서 권 전 해양구조조정본부장을 경영기획본부장에 앉혔다. 권 선임 경영기획본부장은 기획, 예산총괄, 인사, 재무관리 등 경영기획 업무에 더해 기존 해양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자랑스러운 일리노이대 동문상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이 18일 열린 ‘일리노이대(UIC) 재한 동문회 2018 정기 총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 ‘자랑스러운 일리노이대(UIC) 동문상’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K-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기아차 ‘그린라이트’, 인도 소외지역 자립 돕는다

자동차 관련 기술·취업교육 아난타푸르 고교서 출범식 2012년부터 8개국 지원

기아차 대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LP)가 인도 소외지역의 자립을 돕는다.

기아자동차는 18일(현지시간) 인도 아난타푸르 직업교육 고등학교(ITI)에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인도 지역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딜리 라오 아난타푸르 지역 정부 관계자, 마하부베 ITI 학교장, 김도식 기아차 인도법인 경영지원실장 등 관계자 및 현지주민 포함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기아차가 2012년부터 아프리카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는 우선 국제 구호개발 NGO 세



기아차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인도 지역 출범식에서 돌리시 직업전문 고등학교(ITI) 학교장, 김도식 기아차 인도법인 경영지원실장, 딜리 라오 아난타푸르 지역 정부 관계자, 레디 지역개발 담당관, 마하부베 직업교육고등학교(ITI) 학교장, 인도 현지 NGO 관계자 라글란드 실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차

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자동차 제조 관련 기초 지식 교육을 위해 아난타푸르 폴리텍 내 강의장에 냉방기기, 강의장 페인트, 책걸상 등 교육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아난타푸르 직업교육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내 기술 수요를 반영한 취업준비교육 과정을 개발해 청소년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힌두푸르 폴리텍에도 신

규도서, 과학실습도구, 교구재 등을 지원하고 모바일스쿨을 운영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7년간 아프리카 지역 탄자니아, 말라위,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멕시코 페스케리아 지역 등 총 8개국의 소외된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자립을 돕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임세원 교수 유족, 조의금 1억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대한정신정신의학회가 20일 밝혔다.

학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결식에서 유족분들은 ‘기부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이며 이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고인을 우리 곁에 살아 있게 하

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강북삼성병원과 대한정신정신의학회에 절반씩 기부하려 하셨으나 강북삼성병원에서 조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하셔서 추모사업을 위해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 상 등을 제정해 후학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사

-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보령지청장 공석원
-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김행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 승진 △기술협력국 농업경영과장 우수근 ◇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강민규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류성렬
- ◆ 예금보험공사 <전보> ◇ 부서장급 △기금관리과장 최광우 △사회적가치경영부장 조양익 △기획조정부장 김경관 △인사지원부장 이미영 △혁신전략실장 김홍태 △홍보실장 유대일 △국제협력실장 윤차용 △리스크총괄부장 하홍운 △구조개선총괄부장 장진영 △은행금융관리부장 이병재 △보험관리실장 신두식 △저축은행관리부장 박현숙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장민호 △회수총괄부장 이계경 △채권관리부장 최진우 △자산회수부장 신

- 형구 △기금정책부장 심재만 △기금관리실장 김봉환 △기금운용실장 유형철 △조사총괄부장 박태준 △해외재산조사부장 유천우 △비서실장 홍준모 △외부파견(금융감독원) 배효진 △외부파견(국방대학교) 지창우 △외부파견(경찰대학교) 한동석 <신규보임> ◇ 부서장급 △인재개발실장 안병을 △리스크평가실장 권남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강화TF 실장 이병호 △외부 파견(파산재단) 정영호 △외부 파견(파산재단) 윤종덕 △외부 파견(파산재단) 김경록 △외부 파견(통일교육원) 이상조 △외부 파견(몽골예금보험공사) 김근석 △외부 파견(한국은행) 박인식
- ◆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금융지주 <부서장대우 승진> △법무유닛장 이종훈 △브랜드전략부 팀장 박진영 △경영연구소 팀장 겸 연구역 이종아 <전보> △글로벌전략부장 송홍운 △HR부장 김영일 △IT기획부장 이배봉 △WM기획부장 오

- 웅섭 △개인고객기획부장 임근식 • KB국민은행 <부장 승진> △데이터기획 구태훈 △시스템운영 김재희 △구조화금융3 서지원 △신탁운용 서정원 △IT상품개발 오상원 △강남대기업금융센터 영업2 정병현 △인프라금융2 조상용 △디지털개발 조옥진 <센터장 승진> △잠실롯데PB 김민규 △대구PB 김준호 △스타시티PB 신선미 △업무지원 심종립 △양재PB 이영인 △수지PB 홍상우 <수석심사역 승진> △기업여신심사부 소철민 <수석전문역 승진> △파생상품영업부 김현우 △인재개발부 박철
- ◆ 기움증권 <전보> ◇ 팀장 임명 △기움금융센터 총괄팀장 하승선 △기움금융센터 CS기획팀장 김좌목 △리테일파생팀장 송정덕 △커뮤니케이션팀장 성혜정 △영업부팀장 임상욱 △소비자보호팀장 이인숙
- ◆ 한국기자협회 <승진> △사무국 부장 송상미

부음

건축학계 원로 윤장섭 서울대 명예교수

건축학계 원로인 윤장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1925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서울대 공대에 신선했던 건축학과 첫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한양공대를 거쳐 서울대로 이동, 1990년 정년퇴임까지 35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1973년 발간한 ‘한국건축사’는 수십 년간 대학교재로 쓰였다. 고인은 국회의원,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도 참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임됐고 대한건축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경희 씨, 장녀 재옥(호서대 명예교수)·차녀 재영(안산대 교수)·장남 재신(이화여대 교수)·차남 재욱(한국외대 교수) 씨, 사위 강철구(동우건축회장)·황병국(고려대 명예교수)·며느리 이경림(이화여대 교수)·최진영(서울대 교수)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8시다. 02-2072-2011.

- ▲ 위홍(전 전북대 교수) 씨 별세,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씨 부친상, 이인(전 주교대 교수)·황인섭(전북대 교수) 씨 장인상 = 1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063-250-2450
- ▲ 백용균(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교실 명예교수·한국유전학회 초대 회장) 씨 별세, 백승희 씨 부친상, 김인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씨 장인상 = 20일,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031-708-4444
- ▲ 진덕순 씨 별세, 정진숙·은하·진호(서울대 약대 교수) 씨 모친상, 박영호(몽베르컨트리클럽 회장)·황순택(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연구원장) 씨 장모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3410-6903

- ▲ 이양규 씨 별세, 이호경·호석(자영업)·호진(한국전통의전학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22일 오전 8시, 02-3410-6919
- ▲ 주운성(전 보험감독원 홍보실장, 전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씨 별세 = 1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2일, 031-900-0444
- ▲ 안수호 씨 별세, 김규남·규철(해운광업연구소장), 규욱(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씨 모친상 = 19일, 부산시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51-507-3000
- ▲ 김형일 씨 별세, 김기범(경향신문 차장)·옥영(GKL 행복어린이집 주무교사) 씨 부친상 = 2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 02-2258-5951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브렉시트안 부결 이후... EU는 지속가능한가

영국 의회의 이번 합의문 부결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메이 총리가 마련한 '플랜 B'가 기한 안에 의회를 통과하거나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탈퇴 기한을 연장하여 그 사이 새로운 합의안 도출 또는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어찌됐건 현재로는 영국이 첫 EU 탈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정 사상 최대의 표차로 정부가 패배하였다. 유혈투쟁을 벌여 온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합의안에는 2020년까지 사무협정을 맺지 못하면 영국과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당분간 속하기로 하는 백스톱(backstop)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여당인 보수당에서는 진정한 EU 탈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민주연합당(DUP)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이 조항으로 인해 본토와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모두가 반대하는 합의안이 된 것이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찬반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EU 탈퇴를 통보하였고 EU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 2년 후가 되는 2019년 3월 29일에는 탈퇴해야 한다. 그 시한이 이제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번 영국 의회의 합의안 부결은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벌써부터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 브렉시트가 결정된 원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영국의 EU 부담금 증가와 이민자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인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장기 대출 프로그램(LTRO)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QE)을 비롯하여 위기국의 국채와 회사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EU 주요 회원국의 부담금이 증가하였다. 이 중 영국의 부담금은 EU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연간 15조 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EU 수장국 역할을 하는 독일이 적극적으로 이민

자 수용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를 따랐던 영국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다.

사실 EU에 속한 유럽 국가들의 탈퇴 가능성이 비단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 이슈는 벌써 8년이 넘었다. 작년 8월에 구제금융 체제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 사이 경제 규모는 25% 축소되었고 실업률은 아직도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2017년 말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78.6%를 기록하는 등 그리스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3월 선거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3% 내로 제한하는 EU 규정으로 같듯이 고조되었는데 다행히도 내년 예산은 타협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부채비율이 130%가 넘는 이탈리아의 EU 탈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EU 탈퇴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정당대회에서 EU가 개혁하지 않는다면 독일이 EU를 탈퇴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앙겔라 메리켈 총리가 지난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당대표 출마 포기는 물론, 2021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AfD의 지지율 상승은 분명 EU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듯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EU 탈퇴 움직임의 원인이 EU 회원국 간의 부담금, 이민자 수용, 자국 정치 상황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 봉합해 왔지만 앞으로 한 국가의 EU 탈퇴는 다른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영국 의회의 이번 합의문 부결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메이 총리가 마련한 '플랜 B'가 기한 안에 의회를 통과하거나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탈퇴 기한을 연장하여 그 사이 새로운 합의안 도출 또는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도 있다. 어찌됐건 현재로는 영국이 첫 EU 탈퇴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EU 체제가 어떻게 지속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세상을 뒤흔드는 지능정보 범용기술 16개

기술 격변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산업과 사회의 틀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는 자와 낙오되는 자를 양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사이에, 기업 사이에, 그리고 개인 사이에 부의 재편이 일어남은 물론이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기술 격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산하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를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우 체계적인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결과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보고서다. 9개 장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독자들은 제1부 1장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래 사회, 그리고 제2부 2장 기술분야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가. 70쪽을 보면 한 페이지에 걸쳐 '지능정보

범용기술의 등장과 발전 단계'라는 제목의 도표가 실려 있다. 모바일 로봇,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시멘틱 웹 등 모두 16개 기술의 출현 시점과 발전 단계가 정리되어 있다. 독자들은 16개 기술 대부분이 출현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도표 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 독자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 변혁의 전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5G(5세대 이동통신) 등의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은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다. 근래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카볼제와 관련된 갈등은 공유경제의 초보 단계 조

차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저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어려움을 "저활용 자산의 효율적 활용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기업의 논리와 입장에 매몰되어 공유경제라는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정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현재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레벨 5의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2020년 중반에는 자율주행 상용차가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중국 화웨이의 5G 상용화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5G는 차량 간의 통신, 차량과 도로 간의 통신에 최적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초저지연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지연시간으로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연 시간 해결에 5G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5G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2.0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5G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은 2019년 3월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 2개 장은 분량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의 중요 포인트와 현상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기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독했으면 한다. 얼마만큼 시대가 격변하고 있는지 위기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책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려운 내용이기에 편집 과정에서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독자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이준 열사 명언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

조선 말기 순국열사-애국계몽운동가. 그는 '독립신문' 간행, 독립문 건립 등 구국 운동에 전력했다. 1907년 고종 황제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평화회의에 비밀리에 파견돼 일제 침략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 했으나, 열강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한을 남긴 채 순국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59-1907.

☆ 고사성어 /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自己秋霜對人春風]는 말이다. 흔히 줄여서 이렇게 쓴다. 원전은 중국 명나라 말 홍자성(洪自誠)이 쓴 명언집 채근담(菜根譚)이다. 이 말이 최근 사람들 입길에 갑자기 오른 것은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이 내용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어서이다.

☆ 시사상식 /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쓴 말. 사자성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은 1990년대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현재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 신조어 / 짱깨빠빠

'짱 때 끼고 빠질 땐 빠져라'의 줄임말로 '짱깨(짱 때 끼러)'라 쓰기도 한다.

☆ 유머 / 남편 건강증

고교 여자 동창이 만나자 마자 자기 남편의 흉을 보며 이혼하겠다고 말했다. 애써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글세 이 사람은 젊은 여자만 보면 건강증이 도져서 자기가 결혼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단니까. 병이 아주 심하다구."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투자자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마르크스는 정치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미국 공채와 영국 주식에 투자해 400파운드를 벌었다는 일화가 있다. 1850년 함부르크에서 잡지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 평론'을 만들 때에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했다고 한다.

"주식은 나쁜 것, 별다른 노력 없이 목돈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판치는 곳". 최근 한 독자에게서 받은 메일 내용이다.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숫자 놀음이나 해대는 증권부 기자에 대한 훈계성 글이었다.

유독 한국에서는 주식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한국 사람이었다면 투기꾼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모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MF(국

기자수첩



윤기쁨 자본시장1부/modest12@

주식이 왜 나빠?

제통화(기금) 경제위기가 한뎀했다고 본다. 극단적인 증시 폭락과 대규모 기업 부도, 주가 조작과 투기꾼들의 장난질은 주식의 이미지를 한껏 낮췄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주가 조작과 투기꾼들이 모일 수 없는 촘촘한 법률이 존재한다. 탄탄한 관리감독 기관이 있어 코

스피가 종잇장처럼 무너질 수도 없다. 현명한 주주들은 회사에 끊임없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업은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개인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의 중요도와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비상장회사를 포

합해 국내 주식회사는 3만7410개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의 기업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으로 확인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투자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본을 늘릴 수 없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불평등을 싫어했던 마르크스가 과연 투기꾼일까.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도박판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가 투기꾼은 아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자본시장은 클 수 있다. 당국도 투자자도 일반인들도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Table with columns: 이투데이, 社是,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문 대통령과 3년차 증후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 임기 3년차에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이다. 40% 안팎을 유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가 예외였다. 3년차 지지율은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투표 불참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로 환산한 득표율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대선 때 직접 표를 찍었던 사람만 지지자로 남았다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51.6%를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8.9%다. 상대적으로 높은 40% 안팎의 3년차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48.7%)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30.5%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환산 득표율은 34.3%였다. 3년차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차를 맞았다.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은 어느새 40%대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1.1%를 득표했다. 전체유권자 환산 득표율은 31.6%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 공식'을 따르면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밀릴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버티는 형국이다.

주목할 대목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비율이 30% 정도라는 점이다. 환산득표율 31.6%와 비슷하다. 국정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려운 경제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아 지지율 하락세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하락은 예외 없이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의 주인공은 민심이란으로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데스크칼럼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여권 내부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고급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간다. 여기에 측근비리가 불거지면 식물정권이 된다. 역대 대통령이 걸어온 '레임덕의 3단계 공식'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 탈원전 정책에 여당 중진이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태우 사태'와 '신재민 사태'도 정권 초반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사롭지 않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15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곧 소상공인들과도 만난다.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레임덕을 막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경제 상황은 지지율과 직결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명언이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대선과 총선 판도를 가른다. 대통령 지지율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수만 명의 공공일자리를 급조하고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터다. 부쩍 늘어난 기업인들과의 회동도 바로 일자리 때

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개선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겠다고며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과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등 후속 조치도 내놨다.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규제 해소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셔. 기업의 요구는 간단하다. "세계를 뛰어다니며 회사를 키우는 게 기업인들의 보람이다. 그렇게 얻은 수확으로 임직원들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기업인이 아는 애국의 방식"이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에 답해 있다.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인들이 뛰게 해 달라는 호소다. 경제 성장과 고용의 주체가 기업인 만큼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을 이쯤에서 멈춰 달라는 것이다. '친노동 편향성'도 우려한다.

현실은 기업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정책 기조도 그대로다. 여권의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도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형식이야 어찌 됐건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다. 지지율 제고를 위한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인들에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고역일 수 있다. 정책의 변화 없는 이벤트 정치로는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

leejc@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뀌어야

사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명 아래로 추락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96~0.97명,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2017년에도 우리 출산율은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세계 꼴찌였다.

이에 따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더욱 빨리 닥치게 됐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31년으로 예상했다. 작년 출산율도 1.22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측이 크게 어긋나면서 인구 정점 시기는 2027년, 최악의 경우 2023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곧 인구가 줄어드는 재앙적 상황이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리스크다.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고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위축돼 잠재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갈도 빨라진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 13년간 15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지출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 2006년 합계출산율은 1.32명, 2012년 1.30명이었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 1명 아래로 떨어졌다.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여건이 안 돼 있는 탓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부터 기피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데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갈수록 줄어들고, 보육 인프라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 방법조차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수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부지의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락(衰落)하고 있다. 결국 성장을 통해 청년일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다. 그 전제없이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른 문제는 부수적이다. 성장을 먼저 이뤄내는 데 국가 목표와 정책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박병립의 증립, 직립



정치경제부 차장

수소경제는 훌륭한 미드필더인가

선·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라는 골(Goal)을 넣기 위해 혁신 성장을 전방에 세우고 불을 공급할 미드필더는 수소경제로 세운 것이다. 미드필더는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경기의 호흡을 조절한다. 상대 팀이 공격해 오면 중원부터 수비하기도 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수에게 불을 보급하거나 직접 골을 넣는다. 훌륭한 미드필더를 두지 못한 팀은 몇몇 경기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수소경제는 훌륭한 미드필더일까?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긴 한 것 같다. 수송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니고 있다.

매킨지(2017년)는 세계 수소 수요가 급증해 2050년 수소산업은 연 2조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3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수송차, 열차, 선박, 드론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정책으로 연료전지(수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 지원으로 수소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도 야심 차다. 2040년 수소차 620만 대(330만 대 수출) 생산과 수소충전소 1200개 소 마련, 43조 원의 부가가치 및 42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아직 가다듬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수소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수소 추출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가 아닌 부분 친환경이다. 여기에 2030년 세계 자동차 1억 2000만 대 중 수소차는 20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이라 전망도 있다.

에너지와 산업 등 경제의 한 축이 친환경·신분자로 가야 한다는 점엔 큰 이견이 없다. 새로운 경제활력 방안으로 수소경제 카드를 쥐고 있는 것도 나쁠 게 없다. 다만 코리아팀의 감독인 정부가 미드필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작전을 펴느냐와 민간과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riby@



과심 [過甚]

한때 우리 사회에는 '과심죄'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지위와 직급의 고하가 분명한 계급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도에 거슬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받는 미움을 일컫는 말이었다. 정치판에서는 공천권이나 임면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때 '과심죄에 걸렸다'는 표현을 하곤 하였다.

가진 자의 갑질이 매우 심한 시절에 나온 유행어이다. 세상이 많이 투명해진 지금은 전에 비해 훨씬 즐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진 자의 갑질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과심죄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과심'의 어원은 한자어 '過甚'에 있다고 한다. '過'는 주로 '지나고'라고 훈독하여 통과는 행위나 지나간 과거를 나타내는 글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물과'라고 훈독하여 허물 즉 잘못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甚'은 '심할 심'이라고

훈독하며 정도가 심한 상태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過甚'은 '허물이 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범하지 않아야 할 잘못을 저질러 크게 결례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육설에 준하는 꾸지람인 '과심한 놈'의 '과심'이 바로 그런 예이다. '과심한 놈'이라는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단지 윗사람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과심죄에 걸려 승진을 못한다거나 좌천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윗사람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사람은 조직을 망치는 사람이다. 상관의 비위를 건드리면서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조직을 건강하게 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른 안목과 떳떳한 양심을 갖고서 아예 과심죄라는 죄목 아닌 죄목을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나 × LG Objet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



TV | 오디오 | 냉장고 | 가습공기청정기
 하이스페이스 | MERIDIAN technology | 저소음설계 | 굿나잇케어